

개막 도둑파구리

자연환경
보전동화

임종삼 지음



개막 다작파구리

자연환경
보전동화

©임종삼, 2013 Printed in Korea

지은이 임종삼
펴낸이 신인석

펴낸곳 도서출판 우일
디자인 이수진

초판인쇄 2013년 10월 30일
초판발행 2013년 11월 05일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54번길 30(영화동)
전 화 031-242-9001
등 록 2002년 2월 26일

값 10,000원
ISBN :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합니다.

※ 이 책은 수원문화재단의 지원금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까막딱따구리



표지사진 :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제공

자연환경보전동화 까막딱따구리 003

장수풍뎅이



004

물까마귀



자연환경보전동화 **개방자연관** 005

테라노사우루스



검독수리



금강초롱꽃



반딧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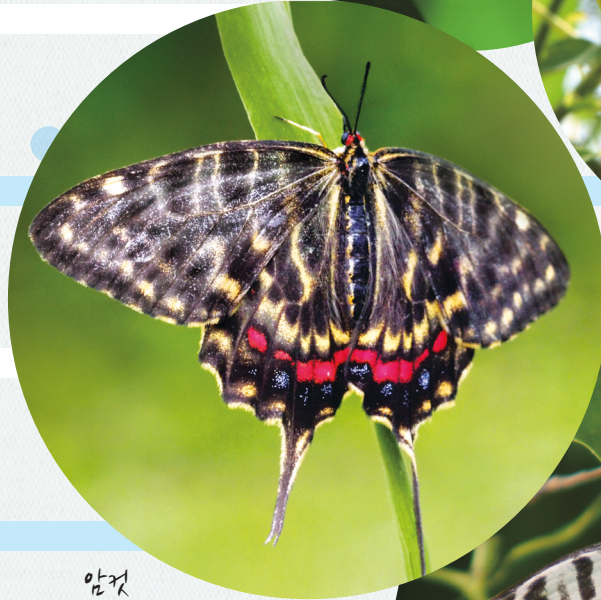




알



애벌레



암컷



수컷



작가의 말



17 | 까막딱따구리



45 | 장수풍뎅이



67 | 물까마귀



85 | 티라노 21세기



99 | 검독수리



117 | 금강초롱꽃



141 | 반딧불이 화장실



151 | 금강소나무



177 | 꼬리명주나비



193 | 참죽나무

작가의 말



사람들은 자연과의 만남을 무척 좋아합니다. 산과 강을 좋아하고, 풀과 나무를 좋아하고, 새와 곤충을 좋아합니다.

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멋진 새를 기르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가꿉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여겨보면 사람들이 동식물을 사랑하는 방식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새와 꽃을 화분과 새장에 가두어 기릅니다. 그래서 새와 꽃은 물론 산과 강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지구에 사람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자연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물의 오염, 공기 오염, 흙의 오염은 물론 시끄러운 소음에 지구의 자연 환경은 오늘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부분인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생태계에서 먹이피라미드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연이 파괴되면 안되겠습니다. 자연이 황폐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니까요.

이 책을 읽고 자연사랑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나와 지구를 사랑하는 지름길입니다.

지은이 임종삼

까막따구리

“잘 가거라.”

“예, 스님. 안녕히 계세요.”

스님에게 큰절을 하고 일어선 현이가 책가방을 둘러 메었다. 지난 1년간 먹고 지낸 절집의 방문을 열었다. 뒷마루에 밝은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2월의 햇살이 꽤나 따스했다.

그때까지 현이 아버지는 뒷집을 지고 마당을 서성거렸다. 영원사의 뜰에서 치악산 남대봉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대봉은 아직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산봉우리에 쌓인 눈은 식목일이 되어야 녹을 것이다.

“고맙네. 신세를 많이 졌군.”

현이 아버지가 스님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이 세상에 빛 안지고 사는 사람 보았나?”
스님이 손사래를 치며 아버지의 말을 서둘러 막았다.

스님과 헤어진 현이와 아버지는 산길을 천천히 내려왔다. 10여 분쯤 걸어 사찰의 어귀에 이르렀다. 사찰의 입구에는 커다란 문패 바위가 하나 솟아 있었다. 바위에는 사찰의 이름이 한자로 새겨져 있었다. 치악산영원사였다.

‘통! 통! 통! 통!’

문패바위를 지나는데 뒤에서 목탁소리가 들렸다. 스님이 부처에게 예불을 드리는 목탁소리였다. 목탁소리를 들은 현이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섰다. 길가에 선채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장했다.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보살피 준 원목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때였다.

‘톡! 톡! 톡! 톡!’

영원 계곡의 갈림길에서 또 다른 목탁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가웃하며 현이에게 물었다.

“현아, 저 계곡에도 새로 지은 암자가 있느냐?”

“아니요. 그곳에 암자는 없어요.”

“그래? 그럼 저 목탁소리는 무엇이지?”

“아, 그거요?”

현이 아버지는 계곡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목탁소리를 궁금히 여겼다.

“저건 스님이 두드리는 목탁소리가 아니에요.”

“목탁소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가 현이의 대답을 재우쳐 물었다.

소쩍새 마을에서 자란 아버지는 치악산 골짜기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꿩과 구렁이의 전설을 가진 상원사도 여러 차례 다녀왔고 아홉 마리의 이무기가 살았다는 구룡사의 전설도 잘 알고 있었다. 치악산 자락에서 40년을 살았으니 그럴 만도 하였다. 그런데 이젠 좀 이상하다. 난데없는 또 하나의 목탁소리에 현이 아버지는 당황하였다.

“아버지, 저것은 목탁새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예요.”

“목탁새? 세상에 그런 새도 있단 말이냐?”

“예, 그런 새가 숲속에 있어요. 스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어떻게 생긴 놈이더냐?”

“꽤 커요. 어치만큼이나 큰 걸요.”

“그래? 아마 목탁새는 딱따구리 종류인가 보구나!”

“맞아요. 까막딱따구리예요. 스님은 까막딱따구리를 목탁새라

고 불리요.”

“왜?”

“들어보세요. 까막딱따구리가 나무를 찍는 소리를 잘 들어 보세요.”

‘통! 통! 통! 통!’

‘톡! 톡! 톡! 톡!’

현이와 아버지가 두 개의 목탁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스님이 ‘통, 통, 통, 통’ 목탁을 두드리면 까막딱따구리는 ‘톡, 톡, 톡, 톡’ 고목을 두드렸다. 마치 군인아저씨들이 발을 맞춰 걷듯 목탁소리를 냈다. 그러다가 스님이 목탁치기를 멈추면 까막딱따구리도 나무 쪼기를 멈추었다.

“보세요. 목탁소리에 맞추어 소리를 내잖아요.”

“그렇구나! 정말 목탁소리에 박자를 맞추는구나!”

“그래요. 까막딱따구리는 천적에게 등지를 들키지 않으려고 저런대요.”

“천적? 천적이 누군데?”

“많아요. 청설모, 수리부엉이, 족제비, 산고양이 등이 모두 목탁새의 천적이예요.”

“너, 산에서 살더니 새 박사가 다 되었구나!”

그랬다. 현이는 치악산에 들어와 살면서 야생동물에 대하여 많

이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까막딱따구리는 유난히 현이의 호기심을 끌었다.

‘어쩌면 까막딱따구리는 저렇게 똑똑할까? 어쩌면 까막딱따구리는 저렇게 구멍을 잘 뚫을까? 어쩌면 까막딱따구리는 천적의 눈을 저리도 잘 피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이었다.

원목 스님과 현이 아버지는 치악산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아버지는 소쩍새 마을에서 자랐고 스님은 금대리에서 자랐다. 스님은 금대초등학교를 다녔고 아버지는 금대초등학교 일론 분교를 다녔다. 두 사람은 원주 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농업고등학교 토목과를 다녔다. 토목과는 집 짓고 다리 놓는 일을 배우는 과목이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이 아버지는 집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 연립 주택을 짓고 냇가에 다리를 놓는 일을 열심히 했다.

현이가 치악산 영원사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 때문이었다. 한 여름에 짓던 건물이 장마에 무너지면서 일하던 사람 두 명이 죽고 세 명이 크게 다쳤다. 병원 입원

비와 사망 보상비가 수억 원에 이르면서 아버지의 건축회사는 파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공사 책임자인 아버지는 교도소에 구속되었고, 빚쟁이에 시달리던 어머니는 집을 나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 까닭으로 현이는 갑자기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다. 그때 오갈 데도 없는 현이를 받아 준 것은 아버지의 친구인 원목 스님이었다.

그해 가을, 현이는 치악산영원사로 이사하였다. 영원사로 이사 오면서 산 아래 마을에 있는 금대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하였다.

금대초등학교는 영원사에서 십리도 넘는 먼 거리에 있었다. 현이는 절에서 학교까지 뛰어 내려가고 계곡을 따라 올라 다녔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힘든 일이더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즐거운 등하곳길이 되었다.

겨울방학을 며칠 앞두고 치악산에 첫눈이 내렸다.

“우와, 눈이다. 스님, 첫눈이 왔어요.”

“그래, 꽤 많이 왔구나! 제법 발목까지 차오르는 걸”

떡갈나무 너른 앞에도 잎갈나무 바늘앞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다.

첫눈이 오자 치악산의 빛깔이 확 달라졌다. 어제까지는 갈색 단

풍이더니 오늘은 하얀 수목화였다. 비로봉에 놓인 두 개의 돌탑은 도깨비 뿔이 되었고 부처바위에 쌓인 눈은 하얀 털모자가 되었다.

“신발이 젖을라. 설피를 신고 학교에 가거라.”

스님이 현이의 등곳길을 살폈다. 다래넝쿨을 불에 구어 둥그렇게 휘어잡은 설피였다. 눈 내린 겨울에 스님이 자주 꺼내 신는 도구였다.

뜨락의 눈을 치우던 스님이 헛간에서 새로 만든 설피를 꺼냈다. 스님이 현이의 운동화에 설피를 덧씩우고 첩덩굴로 단단히 그레매었다.

“현아, 눈발을 한 번 걸어 보아라.”

“예, 어디 한 번 걸어 볼까요?”

“어떠냐?”

“신기해요. 정말 신발이 눈발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 눈이 많이 내리면 산골마을 사람들은 설피를 신고 다닌단다. 신발이 눈에 빠져 발이 젖으면 자칫 동상에 걸리기 쉽지.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이 설피야.”

운동화에 설피를 덧댄 현이가 학교로 향했다. 하얀 눈길에 첫발 자국을 내고 가는 기분이 상쾌하였다.

그날 오후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현이는 산모퉁이에서 고라니

두 마리를 발견했다. 갑자기 현이와 마주친 고라니는 깜짝 놀라 ‘후다닥!’ 산비탈로 내달렸다. 눈발에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으니 고라니들도 현이를 경계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눈이 내리면 산짐승들은 긴장한다. 눈 속에 파묻힌 먹이를 찾아내기 힘들거든. 그래서 산새는 물론 산토끼, 고라니들도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단다.”

“마을로 내려오면 사람들이 잡아먹지 않나요?”

“잡아먹기는? 굶주린 동물을 어떻게 잡을 수 있단 말이나? 산새에게는 좁쌀을 뿌려 주고 산짐승에게는 무시래기를 나누어 주어야지.”

“그러면 산짐승들이 먹고 가나요?”

“그럼, 동고비나 박새는 사람의 손바닥 위에 놓인 땅콩도 물어 간단다.”

그해 겨울, 현이는 산새들과 산짐승을 보는 재미로 겨울방학을 보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면 박새에게 모이를 주고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고라니에게 무시래기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영원사를 찾아와 먹이를 먹고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외로운 마음을 달랬다.

겨울이 가고 2월 5일 입춘이었다. 원목 스님이 입춘 방을 썼다. 입춘대길(立春大吉)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의 글귀를 써서 현이의 방문 위에 붙여 달았다. 새봄의 문턱에 이르러 현이에게 좋은 일과 경사로운 일이 있으라는 기원이었다.

5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학년말 방학이 되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 홀로 남은 현이는 외롭고 쓸쓸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산새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산새들은 무리를 찾아 깊은 숲속으로 날아갔다.

원주시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다.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고 놀았다. 어떤 때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기도 했고, 어떤 날은 PC방에 가서 컴퓨터게임을 하며 놀았다.

그런데 영원사에 들어오고 나니 도대체 누구하고 놀 사람이 없었다. 스님 말고는 대화할 상대가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았다. 온종일 혼자 지내다가 다람쥐 한두 마리 발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루는 스님이 현이를 손짓하여 불렀다.

“현아, 심심한가 보구나. 오늘은 나를 따라 나서라. 땀감을 구하러 가자꾸나!”

“예? 나무하러 가자고요?”

“그래, 너는 톱과 도끼를 챙겨라. 나는 지계를 질 터이니.”

“아, 예.”

스님의 그 한 마디에 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이는 스님을 따라 영원산성 아래의 계곡으로 들어섰다. 계곡의 여기저기에는 장마에 떠내려 온 나무 둥치가 많았다. 뿌리째 떠내려 온 소나무가 있는가 하면 말라빠진 고목도 눈에 많이 띄었다. 스님은 계곡에 널브러진 고목을 1m 크기로 자르고 현이는 삭정이를 주워 날랐다.

두 사람이 거둔 땀감은 금방 한 지계가 되었다. 스님은 지계에 나무토막을 주섬주섬 올려 얹고 밧줄로 단단히 엮어매었다. 땀감을 지계에 다 올려 실은 스님이 마당바위에 올라앉았다.

“현아, 잠시 쉬어갈까?”

스님이 지계에 매달고 온 보자기를 풀었다. 보자기에는 가마솥에서 끓은 커다란 누룽지가 들어 있었다.

“자, 한 쪽 먹어 보아라.”

스님이 누룽지 한 쪽을 떼어 주었다. 누룽지를 보자 현이는 문득 피자가 생각났다. 반 친구 생일이면 어김없이 배달되던 소고기 피자 한 쪽이 생각났다.

소고기 피자에 비하면 누룽지의 맛은 형편없었다. 그런데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어 딱딱하지 않았다. 누룽지를 입에 넣고 우물거려 넘기려니 한참이나 걸렸다.

‘톡! 톱! 톱! 톱!’

누룽지를 먹느라 말도 못하는데 어디서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어라? 웬 목탁소리지?’

목탁소리를 들은 현이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스님, 누가 스님의 목탁을 치고 있어요. 우리 절에 누가 왔는가 봐요.”

숲에서 나는 목탁소리를 듣고 현이는 절에 누가 왔다고 생각했다. 때때로 주말이면 영원사 앞을 지나가는 등산객이 수십 명이 되었으니까. 등산객 중 그 누가 절 구경을 왔다가 장난치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저건 목탁소리가 아니다.”

“목탁소리가 아니라고요?”

“그래, 목탁소리가 아니니 걱정마라. 저건 목탁새가 나무에 구멍을 파는 소리다.”

“목탁새요? 이 산에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럼, 있고말고, 소리 나는 곳을 찬찬히 살펴보아라. 머리 깃이 붉고 몸통이 까만 새를 찾아보아라.”

현이는 목탁소리가 나는 곳을 휘둘러보았다.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스님이 말하는 목탁새는 눈에 띄지 않았다.

“스님,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래? 목탁새를 눈으로 관찰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 동작도 재빠를 뿐 아니라, 나무를 타고 빙빙 돌며 숨거든.”

그 날 이후로 현이는 까막딱따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스님이 예불을 드리는 시간이면 현이는 숲으로 달려 나갔다.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추어 나무에 구멍을 뚫는 까막딱따구리를 찾아 나섰다. 스님만 알고 있는 목탁새의 모습을 찾으려고 영원계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러다가 이제까지 보지 못한 여러 종류의 숲속 동물을 만났다.

현이가 처음 한 달 동안 만난 동물은 산왕쥐, 청설모, 하늘다람쥐, 샐 등이었다.

산왕쥐는 쥐와 같이 생겼는데 눈이 왕방울만큼이나 컸다. 그래서 산왕쥐로 불리는데 이놈은 지난 해 딱따구리가 파놓은 굴에서 겨울을 난다. 커다랗고 검은 눈망울로 굴 밖을 내다보는 산왕쥐를

만나면 은근히 겁이 났다.

청설모는 영원사 근처에 가끔 나타났다. 높은 절 주변의 잣나무에 열린 잣을 노리고 찾아 왔다. 잣이 채 여물기도 전인 여름부터 찾아와 잣을 훔쳐가곤 하였다. 잣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잣방울을 땅에 떨어뜨린 다음 나무에서 내려와 물고 달아났다.

치악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청설모고기가 참새고기보다 훨씬 고소하다고 했다. 그 까닭은 청설모가 잣, 밤, 호도, 도토리 같은 열매나 새알, 다래 새 순 등을 골라 먹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에 산골 사람들은 올가미로 잡은 청설모를 구워 먹는다고 들었다.

날다람쥐라고도 불리는 하늘다람쥐는 다람쥐와 비슷하게 생겼다. 때때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 다녔다. 행글라이더를 타는 사람들처럼 가죽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았다. 심술쟁이 청설모가 쫓아와 괴롭히면 더 멀리 날았다.

샐뎡이를 숲 속에서 만났을 때는 현이도 크게 놀랐다. 까막딱따구리가 내는 목탁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가다 샐뎡이와 딱 마주쳤다.

‘으악!’

샐뎡이에 놀란 현이는 외마디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다. 샐뎡이도 현이의 비명에 놀라 ‘후다닥!’ 숲속으로 달아났다.

살쾅이에 놀란 현이는 그만 절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그러나 봄이 지나도록 현이는 까막딱따구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개학일이 다가오도록 현이는 목탁새의 꿈지깃도 보지 못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치악산에도 새 봄이 찾아왔다. 식목일에는 봄비가 흠족히 내렸고 계곡을 따라 봄꽃이 활짝 피었다. 버들개지가 하얀 눈을 뜨고 생강나무가 노란 꽃을 피웠다. 그 사이로 산봉우리에 쌓였던 눈얼음이 녹아 영원계곡을 가득 채우며 흘렀다. 촛대바위를 지나 거북바위로 떨어져 내리는 폭포가 계곡을 하얗게 빛냈다.

4월 중순이 되자, 산 벚꽃이 온 산을 하얗게 물들였다. 숲에는 파란 새싹이 돋고, 하늘빛 현호색과 보랏빛 얼레지가 꽃을 피워 올렸다.

치악산에 푸른 기운이 돌자 온갖 새들이 몰려 왔다. 박새, 동고비, 곤줄박이도 눈에 띄고 빠꾸기, 피꼬리, 원앙새도 눈에 띄었다.

박새, 동고비, 곤줄박이는 산왕쥐, 하늘다람쥐와 둥지 다툼을 벌였다. 놈들은 지난 해 딱따구리가 파놓은 나무구멍을 찾아 보금자리를 틀었다. 피꼬리는 상수리나무 높은 가지에 둥지를 짓고 원앙은 속이 텅 빈 느티나무의 굽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다.

현이가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6월 6일 현충일이었다. 공휴일이지만 특별히 갈 곳도 없던 현이는 빠꾸기 노랫소리에 이끌려 영원산성에 올랐다. 영원산성은 임진왜란 때 조선 관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산성이었다.

치악산 영원산성에는 커다란 산뽕나무가 몇 그루 있었다. 산뽕나무에는 까맣게 잘 익은 오디가 다닥다닥 달려 있었다. 현이가 오디를 따먹으려고 산뽕나무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길 때였다.

‘푸드득!’

갑자기 털빛이 까만 새 한 마리가 산뽕나무에서 날아올랐다. 언뜻 보아 머리 깃털이 붉은 새였다.

‘목탁새닷!’

현이는 직감적으로 그 새가 까막딱따구리라는 것을 알았다.

산뽕나무로 향하던 현이는 급히 발걸음을 멈추었다. 자세를 낮춰 성가퀴에 몸을 숨기고 먼발치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목탁소리로만 들던 까막딱따구리가 다시 산뽕나무로 날아오는 게 보였다. 까막딱따구리는 지금 새끼를 기르는 모양이었다. 새끼에게 먹일 까만 오디를 부지런히 물어 나르는 중이었다.

‘야호! 드디어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찾았다.’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는 영원사와 영원산성의 중간쯤에 있었다. 까막딱따구리는 굵은 은사시나무에 굴을 파고 두 마리의 새끼를 기르고 있었다. 어미가 오디를 물어오면 새끼는 입을 크게 벌려 넘죽넘죽 받아먹었다.

현이가 까막딱따구리 둥지 30m 가까이 접근해도 어미 까막딱따구리는 아무런 경계음도 내지 않았다. 아마도 현이가 자신의 둥지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까막딱따구리는 이미 현이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낮선 등산객이 아니라 영원사에 사는 숲 속의 착한 아이라고 인정하는 모양이었다.

그 즈음이었다. 현이의 담임선생님께서 영원사를 방문하셨다. 원목스님과 함께 사는 현이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상담하러 오셨다.

“스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셨어요.”

현이가 스님에게 달려가 선생님의 방문을 알렸다.

“스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선방으로 드시지요.”

선생님과 스님이 현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다. 두

분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현이는 차를 달였다. 산죽의 새잎을 넣어 산죽차를 끓였다. 현이가 지난 겨울에 스님에게 배운 솜씨였다.

“산죽차입니다. 맛을 보시지요.”

“차물이 아주 곱군요. 마치 물에 빠진 유리구슬처럼 푸릅니다.”

“그렇습니다. 차맛도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이 혀끝으로 산죽차의 맛을 살폈다.

“아주 조금 단맛이 있습니다. 풀 향기도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현이가 이제 제법 산죽차를 잘 끓입니다.”

“스님, 우리 현이를 이렇게 보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아이들 가르치느라 힘드시지요. 저야 뭐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현이 하나 먹이고 재우는 걸요.”

스님과 이야기를 마친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스님, 산죽 차 잘 마셨습니다.”

“아니, 벌써 일어서시게요? 점심 공양이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산성을 한 바퀴 돌아 봐야 하겠습
니다.”

“영원 산성을 돌아보시게요?”

“예”

“영원 산성이라면 현이가 속속들이 더 잘 알지요. 제 아빠, 엄마가 보고 싶으면 늘 산성에 올라가던 걸요.”

“그랬었군요.”

“현이가 길 안내를 잘 할 것입니다. 산성을 돌아보시고 내려오시지요. 그동안 저는 점심 공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선생님은 망원렌즈가 달린 디지털 카메라를 메고 오셨다. 고적답사와 등산이 취미인 선생님은 스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산성을 답사하러 오셨던 것이다.

“현아, 영원산성을 한 바퀴 돌아보자꾸나. 네가 앞장을 서거라!”

“예, 선생님. 저를 따라 오세요.”

현이는 선생님의 길잡이가 되었다. 가파른 산비탈을 올라 영원산성에 다다랐다. 선생님과 현이는 조선 관군이 왜군을 물리쳤던 영원산성을 한 바퀴 돌며 사진을 찍었다. 산성을 다 돌았을 때에 현이는 선생님께 목탁새에 대하여 질문을 했다.

“선생님, 목탁새를 보셨어요?”

“목탁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러면 까막딱따구리는 보셨어요?”

“까막딱따구리? 아니, 오색딱따구리는 몇 번 만나 본 기억이 있

는데…….”

“저는 보았어요. 치악산 영원사 근처 은사시 나무에 살아요. 까마귀처럼 까만 새예요. 까마귀와 다른 점은 머리에 붉은 깃털이 있어요.”

“무어? 영원계곡에 까막딱따구리가 산다고?”

“예, 발자국 소리를 죽이고 저를 따라와 보세요.”

현이와 선생님은 산뽕나무 곁을 지나 영원 계곡으로 들어섰다.

“까막딱따구리는 조심성이 많아 동지를 발견하기 무척 어려워요.”

“그래? 현이는 어떻게 까막딱따구리의 동지를 찾아냈지?”

“지난 6월 6일 현충일이었어요. 영원산성에 산뽕나무가 있거든요. 오디를 따먹으러 갔다가 까막딱따구리를 발견했어요. 까막딱따구리는 까만 오디를 물어 나르고 있었어요.”

“오디를 물어 나르고 있었다?”

“예.”

“그렇다면 새끼를 기르고 있다는 말이나?”

“맞아요 선생님. 지금 두 마리의 새끼를 기르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동지를 떠날 것 같아요. 벌써 어미만큼 크게 자랐어요.”

현이와 선생님은 산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나아갔다. 이윽고 까막딱따구리 동지 부근에 몸을 숨겼다. 바위 뒤에 숨어 까막딱따구리

의 등지를 훑쳐보았다.

한참 만이었다. 검은 물체가 숲속을 휩 지나갔다. 까막딱따구리 어미였다.

“췌, 까막딱따구리다!”

어미 까막딱따구리는 곧장 날아서 은사시 나무에 찰싹 붙었다. 앵무새처럼 두 개의 발가락으로 나무줄기를 잡고 앉아 잠시 주위를 살폈다. 등지 주변에 새끼를 해칠 천적이 있는가를 경계하는 모양이었다.

까막딱따구리 어미가 다가가자 두 마리의 새끼 까막딱따구리가 등지에서 머리를 내밀었다.

‘까까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까까까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새끼들은 입을 크게 벌려 어미가 주는 먹이를 받아 췌다. 선생님이 망원렌즈 카메라로 까막딱따구리의 모습을 당겨 찍었다.

‘찰각! 찰각!’

선생님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카메라의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다.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날 때 마다 현이는 침을 꼴깍 삼켰다.

‘찰각! 찰각! 찰각!’

‘꼴각! 꼴각! 꼴각!’

6월 말이었다. 새끼 까막딱따구리가 어미를 따라 등지를 떠났다.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었다. 현이는 이제까지 관찰한 까막딱따구리의 생태를 여름방학 과제로 작성하였다. 선생님이 찍어 주신 사진을 넣어 관찰학습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개학날이 왔다. 현이는 까막딱따구리 관찰학습보고서를 여름방학 과제로 제출하였다. 현이의 관찰학습보고서는 여름방학과제 물대회에서 최고상인 금상에 뽑혔다.

가을이 왔다.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치악산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단풍이 들자 치악산을 찾는 등산객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영원사의 원목 스님과 현이는 농부처럼 바빴다.

스님과 현이는 텃밭에 심은 무와 배추를 거두었다. 무는 땅에 구덩이를 파서 묻고 무청은 짚으로 묶어 뒤꼍 응달에 매달았다. 배추는 소금에 절여 백김치를 담고 산나물은 햇볕에 말려 비닐봉지에 담았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어느 늦가을 새벽이었다. 까막딱따구리의 다급한 울음소리에 현이는 퍼뜩 잠에서 깬다.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씩’

목탁새의 다급한 경고음을 듣고 더럭 겁이 났다.

‘산고양이가 둥지를 침입한 것일까? 까막딱따구리가 잡아먹힌 것은 아닐까? 이른 아침에 웬 경고음을 저렇게 내지?’

현이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영원계곡의 은사시 나무로 향했다. 은사시 나무 고목에 튼 까막딱따구리의 둥지를 찾아가 살폈다. 그러나 까막딱따구리 둥지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산고양이와 같은 천적에게 피해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영원사로 돌아오는 길에 현이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겨울이 오면 까막딱따구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 오디, 지렁이, 딱정벌레도 눈에 띄지 않는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까? 행여 굶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현이는 한 가지 피를 내었다. 폭설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산새들의 먹이가 될 만한 열매를 생각하였다.

‘그래, 바로 그거야!’

현이는 대단한 발견을 한 과학자처럼 제 무릎을 쳤다.

그 날 부터 현이는 산사나무의 빨간 열매를 따서 말렸다. 스님이 약재로 쓰려고 산사나무의 열매를 거두어 말리는 것을 보고 생각한 일이다. 현이도 스님을 따라 한 뒷박의 산사 열매를 제 뚝으로

말려 두었다. 산사나무 열매를 약재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뿌릴 궁리를 하던 참이었다.

새봄이 오면 현이는 영원산성에 산사나무 씨앗을 흩어 뿌릴 것이다. 그러면 산사나무 씨앗은 산성의 돌 틈에서 싹을 틔울 것이다. 파란 싹을 틔운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 산사나무가 되고 3~4년 후에는 빨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봄이 오기까지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산사나무 열매는 산새들의 요긴한 겨울 양식이 될 것이다.

이윽고 겨울이 왔다. 그해 겨울에는 30cm도 넘는 많은 눈이 왔다.

눈이 쌓이면 치악산은 하얀 날개를 단 커다란 산새가 된다. 치악산 남북 능선은 한 마리의 거대한 흰 꿩이 된다. 수평으로 날개를 펼친 흰 꿩의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오른다.

눈이 내리면 치악산의 또 한 줄기는 커다란 구렁이가 된다. 거대한 먹구렁이의 모습으로 비로봉을 향하여 다가선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꿩 ‘치(雉)’ 자가 붙은 치악산이요. 그래서 치악산상원사에는 꿩과 구렁이의 이야기가 전설로 남았다.

영원사 입구를 벗어난 현이와 아버지가 소쩍새 마을에 이르렀다. 그때 현이는 절집의 시렁에 엮어둔 산사나무 열매가 생각났다.

“아버지! 잠깐만요.”

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왜, 갑자기 응가라도 마려우냐?”

“아니요. 깜박 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잊은 게 무언데?”

“아! 그거요. 산사나무 열매요. 지난 가을에 모아 둔 산사나무 씨앗이요.”

“그깟 열매는 무엇에 쓰려고?”

아버지는 현이의 생각을 미처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했다.

“안돼요. 까딱딱따구리와 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요. 새 봄이 오면 산사나무 열매를 성터에 뿌리겠다고 산 새들과 약속했어요.”

“그건 또 왜?”

“눈이 오면 산새들의 먹이가 파문혀요. 그래서 굶어 죽는 새들이 많아요.”

“너에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미처 몰랐구나! 현이야, 방금 전에 한 말 사과한다.”

“아니에요 아버지. 한 시간만 기다려 주세요. 얼른 뛰어갔다 올게요. 성터에 올라가 산사나무 열매를 흩뿌리고 올게요.”

“아니다. 나도 함께 가마.”

“정말이요?”

현이와 아버지는 오던 길을 향하여 뒤돌아섰다. 갑자기 현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현이의 발걸음에 맞춰 아버지의 숨소리도 가빠졌다.

현이와 아버지가 영원산성에 올라섰다. 왜군을 물리치는 장군과 병사처럼 씩씩하게 올라섰다. 두 사람은 한 줌의 산사나무 열매를 집어 들었다.

‘휘익! 휘익!’

현이와 아버지가 빨간 산사나무 열매를 성벽 아래로 던졌다. 빨간 산사나무 열매는 왜구를 향해 쏜 불화살처럼 성돌 아래로 날아가 떨어졌다. 여름이 오면 현이가 뿌린 산사나무 씨앗은 돌 틈 사이에서 파란 싹을 틔울 것이다.

한 뒷박의 산사나무 씨앗을 흩어 뿌린 현이와 아버지가 다시 영원 계곡에 들어섰다. 눈 녹아 흐르는 계곡물이 한층 맑았다. 현이와 아버지는 영원계곡의 맑은 물에 손을 담갔다.

“아버지 계곡물이 시원해요. 손 씻고 세수할래요.”

“그래, 눈 녹은 물이 참 시원하구나!”

‘푸럭! 푸럭! 푸럭! 푸럭!’

현이와 아버지는 계곡물을 손바닥에 떠서 요란하게 세수하였다.
 그때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또 들렸다.
 ‘꾸룩! 꾸룩! 꾸룩! 꾸룩!’
 가만히 살펴보니 치악산 까막딱따구리가 내는 소리였다. 현이의
 행동을 보고 기분 좋아 웃는 소리였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까막딱따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어봅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남한산성자연사랑’에서 다음 동식물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피꼬리	하늘다람쥐	산뽕나무 오디
원앙	청설모	산사나무 열매
동고비	수리부엉이	삼

장수풍뎡이

‘푸두두두두두두두두두!’

마을 뒷산 상수리나무 고목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났다. 순간,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들의 고개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어어?’

아이들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어어?’ 소리만 하면서 허공을 바라볼 뿐이다. 상수리나무 고목에서 헬리콥터 소리로 날아 오른 것은 수컷 장수풍뎡이였다.

“부우~웅!”

공중으로 날아오른 장수풍뎡이는 아이들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아이들의 고개도 장수풍뎡이를 따라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 작별 인사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장수풍뎡이가 날자 아이들의 손도 저절로 올라갔다. 수컷 장수풍뎡이가 날아간 하늘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장수풍뎡이가 사라졌다!’

하늘로 날아오른 장수풍뎡이가 언덕 너머로 사라졌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장수풍뎡이가 사라진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장수풍뎡이가 사라진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장수풍뎡이가 되돌아오지 않을까?’

아이들의 눈은 장수풍뎡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한번 날아간 수컷 장수풍뎡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들의 눈은 다시 상수리나무 고목으로 옮겨졌다. 상수리나무 고목에는 아직 두 마리의 장수풍뎡이가 붙어 있었던 까닭이다.

‘저 놈들도 날아갈까?’

아이들의 눈은 이제 상수리나무 고목에 붙어 있는 두 마리의 암컷 장수풍뎡이에 집중되고 있었다. 방금 전만 해도 시끌벅적대던 상수리나무 언덕은 어느새 조용해졌다. 찬물을 끼얹은 듯 숨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어허 이런!”

카메라를 들고 있던 선생님도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장수풍

뎡이가 날아가는 장면을 찍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야행성인 장수풍뎡이가 대낮에 하늘을 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장수풍뎡이를 숲속으로 보내는 일은 선생님도 아이들도 처음 체험하는 일이었다.

그 때였다. 개구쟁이 영철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날아라! 날아라!”

영철이가 상수리나무 고목에 붙어있는 두 마리의 암컷 장수풍뎡이에게 응원을 보냈다. 너희들도 수컷 장수풍뎡이처럼 하늘을 힘껏 날아 보라는 주문이었다. 영철이가 응원을 시작하자 아이들이 입을 맞추어 합창했다.

“날아 봐! 날아 봐!”

아이들의 고향소리는 어느 덧 날아 보라는 주문으로 바뀌었다. 선생님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오늘 행사가 대성공이다.’는 만족한 표정이었다.

「우리 마을 상수리나무 숲에 장수풍뎡이를 되살려요」

철이 담임선생님이 장수풍뎡이를 기르기 시작한 것은 지난봄이었다. 나날이 황폐화해지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생태보전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다. 이 일은 영철이네 마을이 아파트 택지개발지

역으로 지정되면서였다. 마을 주변이 개발되고 자연이 훼손되면서 아이들의 마음도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여 벌인 일이었다.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영철이네 마을에 전철역이 들어선 것은 1년 전이었다. 전철역이 들어서면서 마을에도 도시개발 바람이 불었다. 황금부동산, 원주민부동산 등의 부동산중개소가 마을에 들어서면서 밤나무골은 밤낮으로 술렁거렸다.

“우와, 우리 마을에도 전철이 들어온다.”

전철이 들어오고 영철이네 마을 사람들은 땅 부자가 되었다. 땅 부자가 된 마을 사람들은 고추와 고구마를 가꾸던 밭농사를 포기했다. 그 대신 배나무와 뽕나무 묘목 수백 그루를 사다 심었다.

마을 사람들이 뽕나무나 배나무를 심는 것은 과수원이나 누에 치기를 위해서가 아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과일나무를 심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논밭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 배나무와 뽕나무를 심은 밭은 두세 배로 보상을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논밭은 물론 나무도 계산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배나무와 뽕나무를 총총하게 심어 많은 돈을 보상받으려고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욕심을 부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헌집도 수리하지 않았다. 1~2년 후면 철거될 것인데 헌집을 고쳐 무엇에 쓰느냐며 그냥 살았다. 그러면서도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서둘러 팔았다.

‘젓소를 팔아야겠다.’

보영이네는 젓소를 팔았다. 우유를 짜던 젓소 12마리와 새끼 2마리를 모두 팔았다. 젓소의 먹이와 거름을 실어 나르던 경운기도 팔고, 논밭을 갈고 버를 수확하던 트랙터도 팔아 치웠다. 그 돈으로 마을에서 가까운 대도시에 45평의 새 아파트를 샀다.

‘꽃사슴을 팔아야겠다.’

현주네는 꽃사슴을 팔았다. 현주 할아버지는 사슴목장의 꽃사슴을 팔아 멋진 자가용을 샀다. 그러면서도 사슴목장이 있는 산을 빼앗겼다며 토지개발공사를 욕했다.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남의 사슴농장을 왜 뺏어’

현주 할아버지는 사슴목장이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되는 것을 무척 억울하게 생각했다. 학교에서 운동회를 할 때에도 신호총을 쏘지 말라고 항의하던 분이였다. 새끼를 가진 어미 사슴이 놀란다며 운동회를 중단하라고 고함치던 분이였다.

사슴목장은 현주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그렇게 애지중지 기르던 사슴을 팔고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되니 토지개발공사 측에 불만이 많았다.

‘나무를 팔아야겠다.’

영철이네는 나무를 팔았다. 밭둑에 있는 두 그루의 호두나무를 팔았고 울안에 있는 속살 붉은 참죽나무 세 그루를 팔았다.

참죽나무를 팔자, 참죽나무에 살던 까치들이 뒷산으로 이사를 했다. 까치들도 제 둥지가 있던 참죽나무가 베어질 것을 눈치 챈 모양이다. 까치들은 제 집을 헐어 마을 뒷산의 아카시나무로 이사를 갔다.

참죽나무에 살던 까치들이 마을 뒷산으로 이사를 갈 즈음이었다. 영철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할아버지 연세는 여든 세 살이었지만 며칠 전만 하여도 정정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동티¹⁾가 났다고 했다. 울안의 터줏대감인 참죽나무를 베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그로부터 석 달 뒤에는 영철이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마을사람들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따라 가셨다고 수근거렸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헌집도 뜯어 팔았다. 기와집의 대들보랑 서까래를 뜯어 팔고 고추장, 간장을 담아먹던 장독도 팔았다. 대도시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면 덩치가 커다란 장독은 거추장스런 물건이었다.

마을은 이제 폐허가 다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이사 가

고 남은 빈집은 도깨비 집처럼 어수선했다. 어떤 사람들은 빈집에 남은 온돌방의 시커먼 구들장도 뜯어갔다. 울타리에 심었던 두릅나무는 가지가 꺾이고 주인을 따라가지 않은 고양이만 남아 헛간의 쥐를 쫓아 다녔다.

영철이와 보영이도 이제 부모님의 일손을 돕지 않았다. 아버지를 도와 젓소에게 먹이를 주거나 어머니를 도와 고추를 따지 않았다. 할 일이 없어진 아이들은 그저 학교에 갔다 와서 놀기만 했다. 컴퓨터 게임이나 마니또 같은 놀이만 즐겼다. 컴퓨터 게임에서 본 장난감을 사서 놀거나 칼싸움을 하면서 하루해를 보냈다. 그럴 즈음, 영철이가 마을 뒷산의 상수리나무 언덕배기에서 사슴벌레 두 마리를 붙잡아왔다.

“야, 집게벌레다. 아니, 사슴벌레다.”

영철이의 팔로 두 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상수리나무 고목에는 온갖 곤충들이 모여 들었다. 말벌,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이 상수리나무 수액을 빨아 먹고 살았다.

반 아이들은 영철이가 붙잡아 온 사슴벌레를 만져보며 즐거워했다. 쉬는 시간이면 영철이 책상 주변에 몰려들어 떠들어댔다. 공부시간이 되면 영철이는 사슴벌레를 필통에다 가두어 두었다.

공부가 끝난 오후에 아이들은 떼를 지어 상수리나무 언덕배기로

1) 동티-땅, 돌, 나무 따위를 잘못 건드려 지신을 화나게 하여 받는 재앙

몰려갔다. 이런 모습을 본 담임선생님이 하루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너희들, 사슴벌레 가지고 노는 게 그렇게도 좋으냐?”

“그럼요, 신기하잖아요. 큰 놈이 수놈이고 작은 놈이 암놈이래요.”

“어라? 방아깨비와 다르네. 방아깨비는 엷은 놈이 암놈이고 엷힌 놈이 수놈인데.”

“곤충에 따라 서로 달라요.”

“그래, 사슴벌레를 가지고 노는 것은 좋은데, 하루 쯤 가지고 놀다가 반드시 살려 주어야 한다. 킹콩이 너희들을 사슴벌레처럼 붙잡고 괴롭히면 좋겠니?”

“예,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숲속에 다시 놓아줄 거예요.”

“그래, 그리고 또 말벌을 조심하고, 말벌에 쏘이면 죽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좀처럼 사슴벌레를 놓아 주지 않았다. 어렵게 잡은 사슴벌레이기에 더욱 놓아주기가 싫었다. 서로 돌려가며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거나 굶겨 죽였다.

“선생님, 영철이 사슴벌레 어제 죽었어요. 아마 굶어 죽은 것 같아요.”

보영이가 선생님께 신고를 했다.

“어허, 하루만 가지고 놀다 숲으로 돌려주지 않고, 먹이는 무엇을 주었는데 굶어 죽었니?”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을 주었는데 잘 먹지 않더라고요.”

이튿날이었다. 영철이는 또 한 마리의 사슴벌레를 잡아가지고 왔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영철이의 사슴벌레가 없어지고 말았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교실로 들어와 보니 필통속의 사슴벌레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이다.

“선생님, 제 사슴벌레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간 모양이에요.”

영철이가 볼멘소리로 선생님께 도난 신고를 했다.

“사슴벌레를 어디에 두었는데?”

“필통 속에요. 필통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간 것이 틀림없어요.”

운동장에 나가 노는 사이 필통 속에 넣어둔 사슴벌레가 없어진 것이다. 다른 반 아이들의 짓일 수도 있겠고 우리 반 아이들의 짓일 수도 있었다.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달 전에는 영철이 필통에 넣어둔 만 원이 없어져 선생님이 대신 물어준 적도 있었다.

잃어버린 사슴벌레를 찾으려던 선생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 가지 꾀를 냈다. 학교에서 가까운 경기도물향기수목원으로 현

장체험학습을 계획하셨던 것이다.

경기도물향기수목원에는 사슴벌레, 배추흰나비, 장수풍뎅이 등 곤충의 한살이를 관찰할 수 있는 곤충원을 운영한다. 또한 숲속에 사는 온갖 곤충과 동물, 조류 등을 박제하여 전시하는 산림박물관도 있다.

며칠 후였다. 영철이네 반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물향기수목원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나갔다. 물향기수목원은 넓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측백나무 울타리로 만든 미로 찾기도 재미있고, 솔잎만 먹고 사는 송충이와 제비꽃 잎사귀에 알을 낳는 검은표범나비의 사육장도 관심거리였다.

아이들은 수목원을 휘돌아 우르르 곤충원으로 몰려갔다. 알-애벌레-번데기-성충의 4단계로 이어지는 곤충의 한살이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곤충원을 찾아갔다.

우리 온실로 둘러싸인 곤충사육장에는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자라고 있었다. 배추흰나비 애벌레는 양배추 잎을 갉아 먹고 사슴벌레 애벌레는 상수리나무 고목에 틀어 박혀 자라고 있었다. 잠자리 애벌레인 수채는 올챙이가 담긴 커다란 어항에서 자라고 있었다.

수채는 재빠른 동작으로 올챙이를 붙잡아 체액을 빨아먹으며 자란다.

“이건 뭐지?”

아이들이 모여 든 곳은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담긴 커다란 플라스틱 그릇이었다. 물향기수목원에 근무하는 연구사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배려하여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상수리나무 톱밥 속에 묻어 놓았다. 그러고는 어른 손가락만큼이나 큰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자유로이 만져보게 하였다.

“아유, 징그러워!”

보영이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보고 펄쩍 뛰었다.

“뭐가 징그럽니? 부드럽기만 한데.”

영철이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집어 들고 보영이의 얼굴에 들이댔다.

“으앗, 하지 마! 저리 치워.”

“놀라기는, 너도 만져 봐, 느낌이 좋아, 강아지를 만지는 기분이야!”

영철이는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넘기면서 갖고 싶어 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갖고 싶기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물향기수목원의 곤충학습원을 견학하고 돌아오면서 선생님은

아이들의 몫으로 장수풍뎡이 애벌레 서른 마리를 사오셨다. 곤충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사신 것이다.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오월의 선물이었다.

선생님은 장수풍뎡이 애벌레를 기를 투명한 원통을 먼저 장만하셨다. 이어 상수리나무 언덕배기에서 긁어모은 부엽토²⁾를 원통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플라스틱 원통에 장수풍뎡이 애벌레를 한 마리씩 나누어 담았다.

선생님은 복도 신발장의 빈 공간에 장수풍뎡이 애벌레가 담긴 원통을 놓아두셨다. 야행성인 장수풍뎡이 애벌레의 특성을 고려하여 햇빛이 닿지 않도록 하였다. 장수풍뎡이 애벌레가 담긴 원통에는 아이들의 이름을 써 붙여 수시로 관찰토록 하였다.

“애벌레가 나왔다.”

어른 손가락만큼 크게 자란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밤이 되면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원통을 살펴보면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부엽토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놈도 있었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장수풍뎡이 애벌레를 꺼내어 얼마나 자랐는지 길이를 재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햇빛이 들면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이내 부엽토속으로 몸을 숨겼다.

“번데기가 되려나보다.”

6월이 되었다. 어른 가운데 손가락보다 더 굵게 자란 장수풍뎡이 애벌레는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였다. 원통 속의 부엽토에 흠집을 짓고 번데기가 되었다. 뽕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하얀 고치를 짓듯 둥근 흙방을 짓고 들어 앉아 성충이 되기를 기다렸다.

“애들아, 장수풍뎡이가 이제 완전 변태를 하려는가보다.”

“완전 변태라고요?”

‘완전 변태’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이 킁킁거리며 웃었다.

“그래, 번데기에서 장수풍뎡이가 되는 거지.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가 되었다가 성충으로 변화하는 것을 완전 변태라고 하지.”

“배추흰나비처럼요?”

“그래, 어디 한 번 맞추어 보아라. 4단계를 거쳐서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 또 있을까?”

“예, 있고말고요. 음, 사슴벌레 그리고 초파리요.”

“우와, 영철이가 제법인데, 그렇다면 불완전 변태하는 곤충이나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건 매미와 잠자리를 들 수 있지. 매미는 알-굼벵이-매미로 탈바꿈 하거든. 굼벵이에서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매미로 탈바꿈을 하는 거야.”

2) 부엽토-풀이나 낙엽 따위가 썩어서 된 흙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개구리도 불완전 변태를 하는 동물인가요?”

“그렇지. 개구리도 변태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알-올챙이-개구리의 3단계로 변태를 하니까.”

“아하, 이제야 완전 변태와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에 대하여 제대로 알겠어요.”

선생님과 아이들은 장수풍뎅이 성충을 기를 사육장을 만들었다. 가로 50cm×세로 30cm×높이 40cm 크기의 사각 어항에 장수풍뎅이 사육 상자를 꾸몄다.

장수풍뎅이 사육 상자에는 깊이 20cm 정도의 부엽토를 바닥에 깔아 알 낳을 장소도 마련하였다. 이어 길이 40~50cm 크기의 상수리나무 가지 2~3개를 일기설기 넣어 장수풍뎅이 놀이터를 만들었다. 그리고 투명 플라스틱 뚜껑에 숨구멍을 뚫어 장수풍뎅이 사육 상자를 덮었다. 여기에 성충으로 우화한 장수풍뎅이 암수 대여섯 마리를 옮겨 넣어 사육 관찰하기로 하였다.

“장수풍뎅이가 나왔다.”

드디어 변태기에서 성충으로 우화한 장수풍뎅이가 나타났다. 암놈보다는 수놈이 먼저 완전 변태하여 나타났다. 아이들은 장수풍뎅이 성충이 나오는 대로 사육 상자에 옮겨 길렀다. 장수풍뎅이

변태기가 성충으로 우화하는 데는 약 21~28일이 걸렸다. 장수풍뎅이의 먹이로는 사과를 몇 조각으로 잘라주거나 슈퍼에서 파는 과일 젤리를 사육 상자에 넣어 주었다.

“장수풍뎅이가 과즙을 먹는다.”

장수풍뎅이 성충은 때때로 사과에 코를 박고 과즙을 빨아먹었다.

“장수풍뎅이가 힘겨루기를 한다.”

뿔을 가진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투쟁을 벌였다. 코뿔소의 뿔을 닮은 뿔을 걸고 힘겨루기를 하였다. 힘겨루기에서 이긴 장수풍뎅이는 상수리나무 가지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암놈을 독차지하였다.

“어라? 저 놈은 뒤집어졌다.”

장수풍뎅이 수컷은 힘이 무척 세었다. 코뿔소를 닮은 뿔로 상대를 밀쳐 나무에서 떨어뜨리거나 뒤집어 놓았다. 여섯 개의 발가락에는 작은 갈고리가 돌아 있어 나무 가지에도 잘 붙었다.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장수풍뎅이를 떼려면 여간 힘이 드는 것이 아니었다.

“초파리를 기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다.”

“그래, 초파리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잖아.”

아이들은 장수풍뎅이의 사육 관찰활동이 즐거웠다. 4학년 과학 시간에 ‘초파리의 한 살이’를 공부하였지만 책에 나오지 않는

장수풍뎡이 기르기가 훨씬 더 흥미로웠다. 포도 껍질에 모여드는 초파리의 한살이 보다 몇 배나 더 재미있는 공부가 되었다. 깨알 같이 작은 초파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파리와 구더기라는 이름 때문에 때로는 더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수풍뎡이 기르기는 3학년 때 배운 배추흰나비의 한살이 보다도 재미있었다. 번데기를 만지기만 해도 우화하지 않는 배추흰나비보다 얼마나 기르기 쉬운지 알게 되었다.

밤이 되면 장수풍뎡이 수컷들은 날개를 펼치며 상자 속을 날아다녔다. 겉 날개와 속 날개를 펼쳐 붕붕 거리면서 비좁은 사육 상자를 탈출하려고 하였다.

“애들아, 이제 장수풍뎡이를 놓아줄 때가 되었다. 놈들은 벌써 부엽토 속에 알을 낳았을 것이다.”

“벌써요?”

“그럼, 성충이 된지 벌써 2주일이 지나지 않았느냐?”

우리는 장수풍뎡이가 정말 부엽토에 알을 낳았을까 궁금하였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장수풍뎡이 사육장의 부엽토를 살펴보았다. 부엽토를 한 옆으로 밀치면서 살살이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사육 상자의 한 구석에서 쌀알 크기의 장수풍뎡이 알 11개를 발견하였다. 사육장의 다른 구석에서는 5mm 크기의 장수풍뎡이 애벌레 대

여섯 마리를 발견하였다. 장수풍뎡이 수놈과 암놈은 어느새 짝짓기를 마치고 부엽토에 알을 낳았던 것이다.

선생님은 또다시 장수풍뎡이 애벌레를 아이들에게 분양하였다. 원통 그릇에 담아 집에서 기른 다음 내년에 다시 장수풍뎡이 품평회를 갖자고 약속하였다.

말매미 소리도 요란하던 여름방학이 끝났다. 이제 선생님과 아이들은 장수풍뎡이를 숲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다. 마침내 선생님이 날을 잡았다.

“자기가 기른 장수풍뎡이를 들고 운동장으로 나오너라. 상수리나무 언덕배기로 가자.”

“장수풍뎡이를 놓아 주려고요?”

“그래, 이제는 숲으로 돌려보내야지.”

“좋아요, 선생님.”

선생님과 아이들은 영철이네 마을 상수리나무 언덕배기로 걸어갔다. 거기서 각자가 기른 장수풍뎡이를 상수리나무 숲에 놓아주기로 하였다. 아이들은 자기가 기른 장수풍뎡이를 상수리나무 줄기에 붙여 놓았다. 장수풍뎡이들은 나무를 타고 높은 가지로 천천히 기어오르기 시작하였다.

“잘 가라, 장수풍뎡이들아!”

“잘 살아라, 장수풍뎡이들아! 올빼미에게 잡혀 먹히지 말고”

아이들은 반년 동안이나 정든 장수풍뎡이와 헤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러나 저들을 숲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상수리나무 숲이 저들의 고향이기에 돌려보내야 한다.

숲으로 돌아가면 장수풍뎡이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짝짓기를 하고 부엽토에 알을 낳고 애벌레로 자라 번데기가 되었다가 멋진 장수풍뎡이가 될 것이다. 내년 여름에는 또다시 상수리나무 숲속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피터팬처럼 상수리나무 숲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것이다.

‘부웅~ 착!’

헬리콥터 소리를 내며 숲속의 왕자가 되어 날아다닐 것이다. 야행성이어서 우리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을지라도 상수리나무 숲을 지키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이윽고 영철이네 마을이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마을이 정리되면서 영철이네도 보영이네도 마을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했다.

“쿵쿵, 우르르 쿵!”

불도저가 마을에 들어오고 포클레인이 흰 집을 무너뜨렸다. 흰

집이 무너질 때마다 회색 먼지가 폭탄버섯처럼 피어올랐다. 트럭들은 헌집에서 나온 온갖 쓰레기들을 정신없이 실어 날랐다.

헌집들이 철거되고 언덕배기의 상수리나무 숲도 베어졌다. 아이들이 놓아 준 장수풍뎡이가 살던 상수리나무 숲도 마침내 사라졌다. 갑자기 뻥뻥머리가 된 민둥산이 허전했다.

장수풍뎡이들도 내일이면 상수리나무가 사라진 언덕배기를 떠날 것이다. 영철이네와 보영이네가 대도시 아파트로 이사 가듯 다른 곳으로 떠날 것이다.

언덕배기의 장수풍뎡이들은 마을에서 1~2km쯤 떨어진 숲으로 날아갈 것이다. 권율장군이 왜군을 물리친 독산성이나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현릉원으로 날아갈 것이다.

장수풍뎡이들은 독산성 산림욕장이나 현릉원의 울창한 상수리나무 숲에서 행복할 것이다. 낮에는 낙엽 속에 숨어 낮잠을 자고 밤에는 상수리나무 수액을 빨으며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햇빛 좋은 낮에는 사람들의 소풍 장소가 되겠지만, 달빛 좋은 밤에는 장수풍뎡이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부웅~ 착!’

무술 영화의 액션 스타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자기들을 숲으로 되돌려준 아

이들의 마음을 생각할 것이다. 영철이네 마을의 상수리나무 언덕
배기를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다음 곤충들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장수풍뎅이 암컷	장수풍뎅이 수컷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애벌레	장수풍뎅이 번데기	참매미

물까마귀

‘돌돌돌!’

돌단풍 꽃이 하얗게 핀 화양계곡은 고요하였다. 바위틈을 감도는 냇물소리만 맑게 들렸다. 봄기운이 가득한 화양계곡에도 새 아침이 밝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섯 살 석이가 부스스 실눈을 뜨며 할아버지를 찾았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일어났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벌써 학소대에 가셨다.”

“학소대에 왜 갔어요?”

“물까마귀 보러 가셨지.”

“물까마귀? 그런데 석이는 왜 안 데리고 갔어요?”

“응, 그건 물까마귀가 세수하는 걸 보려고 그러셨지. 물까마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거든”

“할머니, 나도 세수하고 물까마귀 보러 갈 테야.”

“그래, 아침 먹고 할아버지와 다시 가렴”

학소대는 깎아지른 바위 절벽이다. 화양구곡으로 불리는 경치 좋은 9곳 중의 하나다. 옛날, 학이 소나무에 둥지를 틀고 알을 품었다고 해서 학소대로 불렸다. 오래된 소나무 몇 그루가 옛 일을 간직한 채 벼랑에 서 있다.

석이 할아버지는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학소대로 산책을 나가셨다. 아침 운동도 하고 학소대에 둥지를 짓는 물까마귀를 보러 가셨다.

‘ 짹! 짹!’

털빛이 까맣고 울음소리가 명랑한 물까마귀는 산간 계곡에 산다. 참새보다는 조금 크고 까마귀보다는 작은 텃새다. 털빛은 까마귀를 닮았으나 모양새와 울음소리는 참새를 많이 닮았다. 여울에 사는 날도래 유충이나 송사리 등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산다.

할아버지는 요즈음 하루 두 차례씩 물까마귀를 보러 가신다.

아침 일찍 산책을 하고 저녁에 또 한 번 산책을 나가신다. 월요일에는 화양 계곡을 산책하시면서 쓰레기도 줍는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다녀간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어 분리수거도 하신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화양 계곡으로 산책을 나가셨다. 학소대가 가까워지자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석이 할아버지는 냇가에 이르러 무엇인가를 찾았다. 할아버지가 찾는 것은 물까마귀 둥지였다. 학소대 근처에 지은 물까마귀 둥지는 할아버지만 아는 비밀 장소였다.

할아버지가 학소대 부근에서 물까마귀 둥지를 발견한 것은 지난 3월 30일이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아침 산책길에 학소대에 들러 맨손 체조를 하였다. 체조를 마치고 숨고르기를 하다가 물가 바위에 올라앉은 물까마귀를 발견하였다. 물까마귀는 이제 막 목욕을 마치고 깃털을 다듬는 중이었다.

할아버지는 물까마귀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려고 갈대숲에 몸을 숨겼다. 깃털 다듬기를 마친 물까마귀의 다음 행동을 주목하였다. 물까마귀가 잠수하여 작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물까마귀는 할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건너편 바위를 향해 포르르 날아갔다. 할아버지는 물까마귀가 인기척을 느끼고 달아난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물까마귀는 자기의 둥지를 향해 날아간 것이다. 물까마귀의 움직임에 따라 고개를 돌리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아니 저것은?’

석이 할아버지의 눈에 띈 것은 물까마귀 둥지였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까마귀 둥지였다.

‘어? 노출둥지구나!’

석이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일흔 살이 되어서야 처음 본 물까마귀 둥지였던 것이다.

물까마귀는 바위틈이나 폭포 뒤에 둥지를 짓는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물까마귀는 햇볕이 잘 드는 바위 중턱에 집을 지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물까마귀가 둥지를 튼 곳은 냇가 건너편 바위 중턱이었다. L자로 파인 바위틈에 둥근 초가집을 지었다. 계곡에서 모은 푸른 이끼를 모아 축구공 크기의 둥지를 지었다.

푸른 이끼로 지은 물까마귀 둥지는 보호색이어서 주위와 잘 구별되지 않았다. 누렇게 푸른 이끼가 바위에 무성한 모습이었다. 군인 아저씨들이 입는 얼룩무늬 전투복이나 초록빛 위장 천막에 버금갔다.

물까마귀가 이곳에 둥지를 짓기 시작한 것은 2월 초순이었다. 봄의 문턱을 알리는 2월 4일 입춘을 전후하여 물까마귀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암수 두 마리가 이끼를 한 모금씩 물어 날라 둥근 굴집을 지었다. 젖은 이끼로 지은 물까마귀 둥지는 봄바람과 햇볕에 마르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때였다. 잠시 주변을 살펴 경계하던 물까마귀가 사라졌다. 둥지 안으로 재빠르게 사라져 모습을 감추었다.

‘곧 바로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물까마귀가 둥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둥지로 들어간 물까마귀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둥지에서 나오는 물까마귀의 모습을 보려고 10분을 기다렸다. 그러나 한번 둥지로 들어간 물까마귀는 꼼짝하지 않았다.

‘알을 품는 모양이구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물까마귀는 지금 알을 낳거나 알을 품는 모양이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10분이 넘도록 둥지에서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겠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알을 낳는 물까마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다.

참새목에 속하는 물까마귀는 우리나라의 계곡에서 볼 수 있는 텃새다. 몸길이는 약 20cm이고 몸 전체가 흑갈색이며 다리는 은회색이다. 어린 새끼는 몸에 흰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찍, 찍’ 소리를 내며 울고 ‘찌찌이, 쪼이, 쪼이’ 하고 지저귄다.

물까마귀는 계곡의 물가나 돌 틈에서 먹이를 찾는다. 물속의 날도래 유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물까마귀는 암수가 함께 생활하며 벼랑 밑, 암벽 등에 이끼로 둥지를 튼다. 3~6월에 3~5개의 흰색 알을 낳는다. 알은 어미가 품은 지 15~16일 만에 부화되며, 그 후 21~23일이 지나면 새끼는 둥지를 떠난다.

처음 며칠 동안 석이 할아버지는 물까마귀 둥지를 자주 찾아 갔다. 물까마귀의 행동이 궁금해서 참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행동이 물까마귀에게는 심한 스트레스였다. 스트레스를 받은 새들은 알 낳기를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기도 한다. 그 후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까마귀 둥지를 찾아갔다. 30m쯤 떨어진 갈대숲에 숨어 물까마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4월 6일 월요일, 맑은 날씨였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물까마귀 둥

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물까마귀 둥지 건너 편 갈대숲에 숨어 물까마귀의 행동을 관찰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물까마귀가 하류 쪽에서 날아왔다. 물까마귀는 둥지에서 7m 정도 떨어진 바위에 올라 앉아 주변을 경계한다. 그러더니 둥지 속으로 쭉쭉하게 사라졌다. 어디서 희미한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부리에 무엇을 물고 있구나!’

물까마귀가 물고 있는 물체는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 흰 것은 송사리일 것이고 검은 것은 날도래 애벌레일 것이다.

‘벌써 부화를 한 모양이구나!’

잠시 후 둥지에서 나온 어미 물까마귀는 둥지 근처에서 사냥을 했다. 물까마귀가 여울 물속에서 잡아내는 것은 날도래 애벌레였다.

날도래 애벌레는 건축가였다. 제 몸에 나뭇가지와 모래, 낙엽을 붙여 달팽이처럼 갑옷을 만든다. 그런 다음 자신의 몸을 그 속에 숨겨 큰 물고기의 공격을 피한다. 그러나 날도래 애벌레의 껍도 물까마귀의 눈을 속이지는 못한다. 물까마귀는 물속에 기어 다니는 날도래 애벌레를 잠수하여 잡아 올린다. 바다에서 소라와 전복을 잡아내는 해녀와 비슷했다.

물까마귀가 날도래 애벌레를 사냥하는 모습은 아주 재미있다.

물까마귀는 날도래 애벌레의 집을 통째로 물고 나온다. 그 다음에는 날도래 애벌레 집을 바윗돌에 여러 번 내리친다. 그러면 날도래 애벌레 집이 부서지고 애벌레의 몸체가 들어난다.

물까마귀가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를 사냥한다. 물위에 떠오른 송사리를 사냥하기도 하고 물속에 노니는 피라미를 잡기도 한다.

먹이를 물고 온 어미 물까마귀가 꼬리를 출씩댄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 주변을 경계한다. 혹시 자신을 노리는 천적이 있나 없나 주변을 살핀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 짹!’ 소리를 크게 내고는 쏜살같이 둥지로 날아간다. 어미 물까마귀가 낸 ‘ 짹!’ 소리는 새끼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가니 새끼들은 먹이 받을 준비를 하라는 신호였다.

“ 짹 짹 짹!”

물까마귀 둥지에서 희미한 새소리가 들린다. 어미 물까마귀의 신호에 새끼들은 일제히 배고프다 소리를 지른다. 노란 주둥이를 크게 벌려 먹이를 달라고 졸라댄다.

둥지에 다다른 어미는 재빠르게 먹이를 전달한다.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전달하는 시간은 눈 깜짝 할 사이다. 불과 1초도 걸리지 않는 순간이다. 그 짧은 시각에 어미는 새끼 입에 먹이를 넣어주고 되돌아 나온다. 재빨리 둥지를 벗어나 물위로 떨어져 내

린다. 그 동작이 얼마나 민첩한지 번갯불이 번쩍하고 지나는 것만 같다.

‘어미 물까마귀가 눈속임을 하는구나!’

물위로 떨어져 내린 어미는 미끄러지듯 헤엄을 치면서 둥지로부터 멀리 벗어난다. 이런 행동은 천적에게 둥지를 들키지 않으려는 수단이다. 어미가 먹이를 주는 사이, 매나 솔개에게 둥지를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다. 암수 물까마귀는 대략 5분 간격으로 먹이를 열심히 물어 나른다.

4월 13일 월요일 맑은 날씨였다. 오늘도 석이 할아버지는 물까마귀 둥지를 찾아갔다. 어미 물까마귀가 둥지 앞에 나타나면 둥지 속의 새끼들은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20m쯤 떨어진 곳에서도 또렷이 들린다.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둥지 속에 노란 주둥이의 물까마귀 새끼가 보인다.

4월 20일 월요일 맑은 날씨였다. 오늘은 석이도 할아버지를 따라 물까마귀 둥지를 보러 갔다.

“할아버지, 둥지 앞이 왜 저렇게 하얗지?”

“글쎄, 물까마귀 새끼들이 쉰 똥인가 보다.”

석이와 할아버지가 둥지를 살펴보니 물까마귀 둥지 앞이 하얗

다. 무슨 까닭인가 하였더니 물까마귀 새끼들이 싼 똥이다. 엉덩이를 문밖으로 돌려대고 싼 똥이 둥지 앞 바위에 하얗게 말라붙었다. 마치 흰 페인트를 흘려 놓은 것 같다.

어미새들은 새끼가 싼 똥을 물어서 먼 곳에 가져다 버린다. 알껍데기도 먹어치우거나 물어다 버린다. 천적에게 둥지를 들키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산새들의 똥은 대체로 뒹직하다. 물새들의 똥과 같이 묽지 않다. 그러므로 어미가 새끼의 똥을 물어 나르기에 쉽다.

물까마귀 새끼들은 둥지 밖에 똥을 썼다. 그래서 둥지 입구를 하얗게 똥칠했다. 물까마귀 새끼들은 왜 둥지 앞에 똥을 싸서 흘리는 것일까? 냄새나는 똥을 입구에 발라 천적들의 접근을 막으려는 것일까? 아니면 물고기를 먹은 물새들의 똥이 묽은 까닭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문밖에 똥을 싸서 냇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것일까?

어미 물까마귀가 잠시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할아버지는 둥지 앞으로 다가섰다. 둥지에 가까이 접근하여 살펴보니 밖을 내다보던 새끼들이 몸을 낮추고 고개를 숙인다. 희끗희끗하던 털빛이 많이 검어졌다. 울음소리도 제법 어미처럼 크다. 1주일만 더 자라면 새끼들은 둥지를 떠날 것 같다.

4월 24일 금요일 아침이었다. 할아버지와 석이는 둥지를 떠날

물까마귀 새끼들을 보러 갔다. 어제 그제 이를 동안은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흐렸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햇살이 아주 맑고 밝다. 물까마귀 새끼들은 이런 날 둥지를 떠난다.

할아버지는 물까마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날짜까지 예상하여 알고 있다. 물까마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예정일은 4월 26일이지만 예정보다 하루, 이를 앞당길 것이다.

할아버지는 여러 해의 경험으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물까마귀 둥지는 여러 사람에게 들켰다. 석이 할아버지는 물론 꺾지 낚시를 하는 아저씨에게 발견되었고 다슬기를 줍는 아주머니에게도 들켰다.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은 물까마귀는 서둘러 둥지를 떠날 것이다.

새끼 물까마귀가 둥지를 떠난다고 곧바로 먼 곳으로 날아가는 것은 아니다. 둥지 근처의 갈대숲이나 갯버들에 숨어 일주일 쯤 지낸다. 어미를 따라 다니며 환경에 적응한다. 미숙한 수영도 배우고, 깃털 다듬기도 익히고 먹이 사냥 방법도 배운다. 그런 다음 어미 품을 떠나 다른 계곡을 찾아 갈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미 물까마귀의 행동이 며칠 전과 전혀 다르다. 잡아온 먹이를 새끼들에게 냉큼 건네주지 않는다. 둥지 앞에 서성이며 새끼들을 먹이로 유인한다.

‘나와, 어서 나와, 나와서 받아 먹어’

어미 물까마귀가 새끼들에게 둥지에서 나오라고 재촉한다. 어미가 먹이로 유인하자 새끼 1호 꾀일이가 둥지 입구에 나와 좌우를 살핀다. 어느 쪽으로 뛰어 내려야 안전할지 살핀다. 한참을 살피던 꾀일이가 용감하게 물위로 뛰어 내렸다. 갈대와 갯버들이 우거진 냇가로 뛰어 내렸다.

“할아버지, 꾀일이가 뛰어 내렸어요.”

“그래, 그 놈 참 씩씩하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2m 높이의 둥지에서 물위로 뛰어내린 꾀일의 용기를 칭찬하셨다.

“할아버지, 꾀일이가 헤엄을 쳐요.”

“그러게 말이다. 헤엄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 치는구나!”

둥지에서 뛰어내린 꾀일은 물위에 떨어져 내리자마자 헤엄을 친다. 평소 어미가 헤엄치는 것을 보아둔 것일까? ‘푸르푸르’ 능숙하게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그러더니 냇가의 갯버들로 재빨리 몸을 숨긴다.

“할아버지, 꾀일이가 숨었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하나 살펴보자꾸나!”

버드나무숲에 몸을 숨긴 꾀일이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회색 빛

갈 얼룩무늬가 버드나무 줄기 그늘에 가려 찾기 힘들다.

새끼 물까마귀의 깃털은 어미처럼 검은 색이 아니다. 노란 부리에 회색 줄무늬가 있어 어미와 확실히 구분된다. 일종의 보호색이다.

“망원경으로 살펴보자.”

할아버지가 망원경을 꺼내 새끼 물까마귀를 찾아냈다. 버드나무숲에 몸을 숨긴 꾀일이가 잠시 주변을 경계하더니 이내 깃털을 다듬는다. 깃털을 부풀려 몸을 털기도 하고 냇물에 들어가 목욕도 한다.

“할아버지, 꾀일이가 목욕을 해요.”

“그렇구나! 그 놈 참 깔끔하기도 하지.”

할아버지는 목욕을 하는 꾀일을 칭찬하셨다.

갯버들에 몸을 감춘 꾀일이가 꼬리를 주춤대며 어미를 기다린다. 때때로 냇가의 물위를 주르르 헤엄치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미 물까마귀의 목소리가 들리면 날갯짓을 하며 짹짹댄다. 저 먼저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어미 물까마귀들은 이제 임무를 나누어 맡았다. 둥지를 박차고 뛰어나온 꾀일리와 아직 둥지에 남아있는 꾀리와 꾀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역할을 나누었다.

둥지를 박차고 나온 새끼 물까마귀는 매우 위험하다. 화양계곡

에는 새홀리기, 황조롱이, 말뚝가리 등의 맹금류도 서식하기 때문이다. 새끼 물까마귀가 황조롱이에 걸리면 여지없이 잡아먹힌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여 어미 물까마귀는 잠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새끼 물까마귀를 갯버들이나 갈대숲에 숨겨 둔다.

석이와 할아버지는 사흘 후에 다시 오기로 하고 물까마귀 둥지를 떠났다.

화양계곡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간다. 물벼룩, 장구벌레, 날도래 애벌레가 풍부하고 참개구리, 무당개구리의 알과 올챙이가 풍부하다. 피라미와 꺾지 등의 물고기도 있고 반딧불이의 중간 숙주인 다슬기도 많다. 물이 맑고 수풀이 우거져 먹이 피라미드가 살아있다.

그런 까닭으로 화양계곡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살아간다. 물까마귀, 오목눈이, 할미새, 찌르레기, 어치, 원앙, 백로, 왜가리 등이 서식하고 외국에서 들여 온 거북이 아닌 자라도 모래톱에 산다. 그런가하면 먹이 피라미드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달, 참매, 황조롱이, 말뚝가리도 종종 나타난다.

화양계곡에서 석이가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은 수달이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수달을 만나려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할아버

지를 따라 화양계곡에 나와야 할 것이다.

4월 27일 월요일 맑은 날씨였다. 할아버지와 석이는 물까마귀 둥지를 다시 찾아갔다. 물까마귀의 둥지가 있는 학소대를 찾아가니 사방이 조용하다. 새끼 물까마귀는 둥지 근처에 없었다. 어디로 간 것일까? 아직 둥지로부터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석이와 할아버지는 어미 물까마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리자 어미 물까마귀가 빠르게 날아왔다. 어미 물까마귀는 자신의 둥지를 본체만체 계곡의 상류로 날아갔다. 물까마귀 가족은 계곡의 상류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석이와 할아버지는 계곡을 따라 상류로 올라갔다. 너럭바위가 아름다운 파천에서 물까마귀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물까마귀 새끼들은 화양계곡의 제9경인 파천에 머물러 있었다.

석이와 할아버지는 물까마귀 새끼들을 살펴보고 접근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다. 새끼 물까마귀들은 이파리가 무성한 갯버들에 숨어 있었다.

“할아버지, 새끼 물까마귀가 안보여요. 먹이 달라고 짹짹거리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 그렇구나!”

“왜 그래요? 왜 새끼 물까마귀를 숨겨 놓아요?”

“왜냐하면 새끼 물까마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새끼 물까마귀를 잡아먹는 황조롱이나 새매들의 공격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이파리가 무성한 갯버들에 새끼 물까마귀를 숨겨 놓은 거야.”

“아하, 그렇구나! 물까마귀들도 참 똑똑하네.”

“그럼, 똑똑하고 말고. 우리 석이처럼 똑똑하지.”

새끼 물까마귀들도 이제 자신을 지킬 줄 알게 되었다.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방법과 먹이를 잡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석이야,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새끼 물까마귀들도 이제 다 컸어.”

“할아버지, 새끼 물까마귀 또 언제 보러 올까요?”

“그야 내년 봄이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물까마귀가 계곡 어딘가에 다시 둥지를 짓고 알을 낳을 거야.”

“그 때, 또 새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볼 수 있고 말고.”

석이와 할아버지가 화양구곡의 파천을 벗어났다. 화양계곡은 다시 ‘돌돌돌’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

석이와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솔뚜껑만한 자라가 물속

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슬며시 기어 나와 파천의 너른 바위로 올라왔다.

너럭바위로 올라선 자라가 따뜻한 봄볕을 즐긴다. 춥고 배고픈 겨울잠에서 깨어나 낮아진 체온을 높인다.

‘아아! 햇볕이 따뜻하다. 이제야 살 것 같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물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들어봅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다음 동식물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물까마귀	날도래	참매
물까마귀 새끼	날도래 애벌레	자라
물까마귀 둥지	갈대	수달

티라노 21세기

뿔기가 하얗게 돌아나올 무렵이었다. 한 떼의 아이들이 공룡 알 화석지로 현장학습을 나왔다. 아이들은 수백만m²나 되는 너른 시 화간척지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 띠 풀이 파르라니 자란 끝없이 너른 들판을 달리며 환호했다.

아이들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생겨난 붉은 바윗돌에 뒹굴었다. 우주를 떠돌던 별똥별이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한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공룡이 서식하던 쥐라기 공원의 색다른 모습에 어리둥절했다.

“선생님, 저 괴상한 바위가 공룡화석인가요?”

아이들은 공룡을 닮은 붉은 바위를 보고 그렇게 물었다.

“아니, 저건 쥐라기 시대의 바위란다. 어때?”

“신기해요. 바위가 마치 불에 그을린 공룡 같아요.”

“그렇다. 저건 공룡이 살던 시대의 바위덩어리란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바위들이야.”

“그래서 바위가 붉은 색을 띠는군요.”

“그래,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생긴 퇴적암이란다. 불에 그을린 모래와 자갈이 뒤섞여 생긴 붉은 퇴적암이지. 저 언덕에 공룡 알 화석이 들어있단다. 어서 네 눈으로 직접 찾아보렴.”

“알았어요, 선생님.”

아이들은 선생님을 앞질러 바위섬으로 달려갔다. 공룡 알 화석이 드러나는 언덕으로 달려가 주먹 크기의 공룡 알 화석을 서둘러 찾았다.

“선생님, 공룡 알 찾았어요. 이리 와서 보세요.”

“선생님, 여기도 있어요. 이리 오세요.”

아이들이 찾은 공룡 알 화석은 한두 개, 또는 대여섯 개씩 모여 있었다. 검붉은 퇴적암 여기저기에 알알이 박혀 있었다. 공룡 알 화석을 만져보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외쳤다.

“선생님, 공룡 알이 따뜻해요. 선생님도 만져 보세요.”

“그래?”

봄 햇살을 받은 공룡 알 화석은 정말 따뜻했다. 사막의 모래밭

등지에 남아 놓은 타조 알처럼 느껴졌다.

“선생님, 아기 공룡이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껍질을 깨고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정말 그렇구나! 금방이라도 껍질을 깨고 나올 것만 같구나!”

그랬다. 봄 햇살을 받은 공룡 알 화석은 따뜻했다. 뿔기 숲에 숨어 있던 어미 공룡이 ‘퀴르르!’ 하고 튀어 나올 것만 같았다. 종달새, 꿩, 수리부엉이, 산토끼, 고라니가 사는 너른 들판에 공룡 가족도 함께 사는 듯 했다.

‘종알종알, 종알종알’

따스한 해풍이 불어오자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띠 풀이 가득한 들판 위로 솟아올랐다. 한번 날기 시작한 종달새는 바벨탑을 오르듯 빙글빙글 돌아 올랐다. 숨도 차지 않은 듯 끝없이 지출대며 나사못처럼 까마득히 하늘로 날아올랐다.

아지랑이가 아른대는 너른 별판에도 봄이 왔다. 새봄을 알리는 종달새의 울음소리에 꿩도 푸드덕 날고 산토끼와 고라니도 후다닥 너른 별판을 달렸다.

뿔기가 하얗게 돋는 4월, 하늘을 높이 날던 종달새가 등지를 틀었다. 따스한 봄볕이 쏟아지는 띠 숲에 얼룩무늬가 선명한 알을 낳았다. 알은 어미 종달새의 따스한 품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종달새의 알에 봄별이 쏟아졌다.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자 알에서 작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톡톡, 톡톡!”

아기 종달새가 노란 부리로 알껍데기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알껍데기에 작은 구멍이 생기고 아기 종달새의 노란 주둥이가 나타났다. 순간, 화사한 햇별이 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아기 종달새의 알몸에 우주의 기운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기 종다리의 젖은 깃털이 봄바람에 바르르 떨렸다. 이제 막 허물을 벗은 밀잠자리가 젖은 날개를 말리듯 떨었다.

‘ 짹, 짹!’

햇별이 내리쬐자 아기 종다리의 몸에서 젖비린내가 물씬 났다. 태양계에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종달새가 둥지를 튼 곳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의 공룡알 화석지이다. 시화방조제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264만㎡의 끝없이 너른 들판이다.

바닷물이 빠지고 갯벌이 드러나면서 시화간척지에는 여러 개의 바위섬이 바닥까지 드러났다. 드문드문 놓여있는 바위섬이 갯벌로 연결되고 간척지 여기저기에 붉은 빛깔의 퇴적암이 나타났다.

1억 년 전에 생긴 퇴적암에는 주먹 크기의 공룡 알 화석도 함께 드러났다. 끝없이 너른 시화간척지의 무인도에서 수백 개의 공룡알둥지가 발견되었다.

타조 알 크기의 공룡 알 화석은 두어 개 또는 대여섯 개씩 모듬을 이루었다. 아프리카 타조가 자갈밭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듯 둥지를 틀었다. 공룡 알 화석은 타조 알처럼 껍데기가 두껍고 단단했다. 1억 년의 세월에 한 개의 돌로 변한 공룡 알 화석의 둥근 껍질은 검푸르다.

시화간척지의 공룡 알은 쥐라기 시대의 막바지에 화석이 되었다. 아마겟돈이라는 대재앙을 만나서 순식간에 화석이 되고 말았다. 지구를 가까이 지나가던 소행성이 태평양에 떨어지면서 공룡시대는 급작스레 막을 내리고 말았다.

소행성의 충돌에 지구는 대 폭발을 일으켰다. 거대한 불길과 연기와 구름에 휩싸였다. 바닷물은 펄펄 끓고 울창한 밀림의 나무는 숲이 되었다. 핵폭탄 보다 더 무서운 폭발에 지구의 생물들은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았다. 쥐라기 시대의 지배자였던 공룡의 무리도 여지없이 몰락하고 말았다.

약 1억 년 전, 지구의 주인은 공룡이었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등이 지구를 지배하는 세상이었다. 시

화간척지의 공룡 알 화석지도 물론 공룡들의 서식지였다.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먹이를 사냥하며 새끼를 기르던 삶의 터전이었다.

공룡들의 낙원이었던 공룡 알 화석지는 이제 인간들의 낙원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이곳을 차지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기른다.

시화공룡화석지로 현장학습을 다녀온 뒤였다. 선생님께서 수십 개의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퍼즐을 사오셨다.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퍼즐을 조립하며 공룡의 뼈대를 살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앞발은 덩치에 비하여 매우 짧았다. 그러나 매우 단단하고 날카로웠다.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처럼 먹이를 움켜쥐고 뜯어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는 엄청나게 컸다. 하마처럼 입이 커서 사냥감을 단번에 물어뜯었다. 머리가 커서 무거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뼈는 스티로폼처럼 빈 공간이 많아서 생각보다 가벼웠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는 길고 튼튼했다. 캥거루처럼 몸의 균형을 잡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때로는 다른 짐승들과 싸우면서 악어처럼 꼬리를 사용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꼬리에 맞으면 거대한 매머드도 나가떨어질 판이었다.

철이네 반 아이들은 티라노사우루스 모형 조립 설명서를 보고 뼈대를 조립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하나 조립하고 나니 공룡 뼈대의 모형이 근사하였다.

“야호! 드디어 성공이다.”

여기저기서 모형 조립에 성공한 아이들의 환호성이 울랐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른 종달새 울음처럼 명랑하고 쾌활했다.

철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공작대에 세워 놓았다. 반 친구들이 조립한 공룡모형을 한 줄로 세워 놓으니 더욱 재미있었다.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마치 애국조화를 서는 아이들과 같았다.

학교 수업이 끝났다.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온 철이는 매직펜을 찾았다. 책상 서랍에서 매직펜을 꺼내들고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에 어떤 이름을 붙일까? 궁리하였다. 이리저리 한참을 생각하던 철이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군!’

‘티라노21세기, 지금은 쥐라기시대도 아닌 21세기니까’

철이는 티라노사우루스 모형에 ‘티라노21세기’라는 별명을 써서 책꽂이에 올려놓았다.

그날 밤이었다. 철이의 책상 서랍에서 잠자고 있던 우주선 팽이가 깨어났다. 우주선 팽이는 저절로 빙글빙글 돌며 커지더니 타임머신이 되었다. 이윽고 방안을 돌아다니던 타임머신은 철이와 티라노21세기를 태우고 과거로 날아갔다. 공룡시대의 쥐라기 공원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다.

티라노21세기와 철이가 탄 타임머신은 팽이 모양이었다. 한번 실을 감아 던지면 실위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우주선 팽이 모양이었다.

티라노21세기와 철이가 도착한 곳은 시화간척지였다. 쥐라기 시대의 시화간척지는 울창한 숲이었다. 100m가 넘는 삼나무와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밀림이었다. 바다가 되기 전의 시화간척지는 또 다른 쥐라기 공원이었다.

쥐라기 공원의 숲에는 헬리콥터처럼 생긴 용잠자리가 하늘을 날았다. 쥐라기 시대의 용잠자리들은 고무동력기처럼 숲속을 날아다녔다. 모형항공기 대회에 나온 고무동력기처럼 ‘푸룩, 푸룩!’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날았다. 어떤 놈은 글라이더처럼 소리 없이 숲속을 날아다녔다. 유리구슬처럼 파랗고 커다란 눈을 가진 용잠자리는 수리부엉이 눈알보다 더 무서웠다.

삼나무 숲이 끝나는 곳에 너른 벌판이 있었다. 쇠뜨기가 무성한

벌판에는 익룡이 하늘을 날았다. 익룡은 박쥐와 펠리컨을 닮았다. 회색 빛의 가죽 날개와 날카롭고 긴 부리를 가졌다. 익룡들은 종이비행기처럼 낫으막이 하늘을 날며 괴이하게 울었다.

“끼악, 끼아악!”

행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던 익룡들이 쇠뜨기 풀밭으로 미끄러지듯 내려앉았다. 마치 바퀴 없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비상 착륙을 하는 모습이었다. 동체로 비상 착륙을 마친 익룡들은 쇠뜨기가 무성한 곳을 골라 등지를 틀었다. 익룡들은 서너 개의 알을 낳아 놓고는 주변의 높은 절벽 위로 뽕근처럼 걸어 올라갔다. 절벽으로 올라간 익룡들은 그곳에서 펠리컨처럼 하늘을 날았다. 절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았다. 거대한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전투기처럼 하늘로 이륙하고 땅으로 착륙하였다. 익룡들의 아름다운 비상을 보고 철이가 소리쳤다.

“저것 좀 봐! 익룡이 하늘을 날고 있어.”

철이가 가리킨 곳에서 두 마리의 익룡이 절벽을 뛰어내려 하늘을 날고 있었다.

“도리그나투수야! 저 애들은 가마우지처럼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지.”

이제까지 아무 말이 없던 티라노21세기가 갑자기 입을 떼었다.

“도리그나투스라고?”

“응 그래, 시조새의 사촌이지. 21세기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의 조상이야.”

티라노21세기가 별판의 끝을 가리키며 철이에게 말을 걸었다.

“가자, 저 끝으로 달려가자. 저 모래 언덕이 내가 살던 고향이야.”

티라노21세기가 앞서 달려갔다. 그 뒤를 철이가 숨차게 쫓아갔다. 쇠뜨기 밭을 지나 별판의 끝으로 빠르게 달려갔다. 쇠뜨기 밭이 끝나자 붉은 자갈이 섞인 모래 언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곳이야. 이곳이 내가 태어난 언덕이야.”

티라노21세기가 가리키는 붉은 언덕에는 공룡 알둥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그 너른 언덕에 티라노사우르스 공룡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이지? 어째서 둥지만 있고 어미 공룡들은 보이지 않는 거야?”

철이가 궁금한 듯 티라노21세기에게 물었다.

“그건, 공룡 알이 햇볕에 자연 부화하는 까닭이야. 너도 알지? 바다거북이가 해변의 모래밭에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야.”

“응, 그래. 나도 EBS TV 방송에서 보았어. 갈라파고스 섬의 거

북들은 자기가 태어난 바닷가 모래 언덕으로 돌아와 알을 낳더군. 모래 속에 알을 낳고 떠나면 거북이의 알은 따뜻한 모래속에서 저절로 부화하더군.”

“그래, 바로 그거야. 우리 공룡들도 그렇게 부화하는 까닭이야. 거북들과 다른 점은 알을 땅속에 묻지 않는다는 거야.”

“알을 땅속에 묻어놓지 않으면 새들이 날아와 깨먹지 않을까?”

“모르는 소리. 티라노사우르스의 알은 타조 알처럼 껍데기가 단단했어. 또한 쥐라기 시대에 티라노사우르스의 천적은 없었어. 그런 까닭으로 모래 언덕에 알을 낳아도 없어지지 않았지. 단지 섭씨 37~38도의 따뜻한 햇볕만 필요했어.”

“그랬군, 그래서 공룡들은 햇볕이 잘 드는 언덕에 둥지를 틀었구나!”

티라노21세기와 철이가 공룡 알둥지가 모여 있는 붉은 자갈 언덕으로 나아갔다.

“여기야, 바로 여기야.”

티라노21세기가 가리키는 곳에 공룡 알둥지가 있었다. 공룡 알둥지에는 모두 다섯 개의 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 동생들이야. 이제 곧 태어날 귀여운 동생들이지.”

티라노21세기가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알들을 쓰다듬

었다. 그러자 한 개의 공룡 알이 꿈틀하며 움직였다. 알속의 아기 공룡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하였다. 그 모습을 본 티라노21세기가 앞발로 공룡 알을 받쳐 들고 말했다.

“굴려 주어야 해, 알을 굴려 주어야 해. 그래야 껍질이 깨지거든.”

“알을 굴려 주어야 한다고?”

“그래, 티라노사우르스 공룡은 하늘을 나는 도리그나투스와는 달라. 긴 부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없어. 누군가 굴려주거나 제 스스로 언덕을 굴러야 해. 비탈을 굴러 바윗돌에 알껍데기를 깨뜨려야 해.”

“그래? 그것 참 신기하구나!”

티라노21세기와 철이가 티라노사우르스의 알들을 언덕 아래로 굴리기 시작했다. 데굴데굴 언덕을 굴러가던 알이 바윗돌에 부딪치며 금이 갔다. 그러자 알속에서 새끼 티라노사우르스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끼악, 끼악!”

“끼악, 끼아악!”

알껍데기가 깨지면서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이 머리를 내밀었다. 몸뚱이보다 더 큰 머리를 가진 새끼 티라노사우루스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알에서 갓 나온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은 머리를 들

지도 못했다. 두 시간 쯤 햇볕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앞발을 들고 일어서기 시작하였다.

“어서 와, 어서 이리와!”

티라노21세기가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에게 외쳤다. 만형처럼 의젓한 몸짓으로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가자, 어서 가자, 삼나무 숲으로 가자. 아빠 엄마가 기다리는 숲으로 달려가자.”

티라노21세기와 철이는 새끼 티라노사우르스들을 데리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쇠뜨기풀이 가득한 들판을 지나 삼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나아갔다. 용잠자리가 고무동력기처럼 날아다니는 삼나무 숲으로 달려갔다.

“끼악, 끼아악!”

삼나무 숲이 가까워지자 티라노사우루스 새끼들이 어미를 찾아 울었다.

“키악, 크르르릉!”

숲속에서 어미 티라노사우르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걸어 나오는 어미 티라노사우르스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다가왔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들어봅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남한산성자연사랑’, ‘화성시청’
에서 다음 사진을 찾아봅시다.

시화호	종달새	공룡알 화석지
화성호	수리부엉이	티라노사우르스
빨기	꿩	고라니

검독수리

‘휘익~’

논밭을 가로 질러 시커먼 그림자가 쓰윽 지나갔다. 순간, 마을은
취죽은 듯 조용해졌다. 양철 지붕을 두드리던 소나기가 푹 그친
듯 고요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검은 그림
자라니. 혹시 비행기가 지나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
다. 마을에는 비행기소리는커녕 닭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그 때였다. 그루터기만 남은 벼논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물체가
보였다.

“저것 봐라, 저것 봐!”

바깥마당을 쓸던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다급한 목소리
로 외쳤다. 영수네 논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물체는 검수리였다.

하늘의 왕자로 불리는 수리 중의 수리, 검독수리(Golden eagle)였다.

검독수리의 억센 발톱에는 병아리 한 마리가 잡혀 있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밤낮으로 돌보던 약병아리였다. 지난해 가을, 알에서 늦게 깨어난 서리배³⁾이었다. 이제 막 어미 닭의 품을 떠난 중병아리였다. 검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에 잡힌 약병아리는 찌소리도 내지 못했다.

커다란 날개를 펴덕이며 날아오른 검독수리는 소리 없는 글라이더였다. 좌우로 펼친 검독수리의 날개는 어른의 양팔보다 더 길었다. 약병아리를 움켜쥔 검독수리는 앞산을 넘어 평사리 쪽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허허!”

검독수리에게 약병아리를 빼앗긴 할아버지는 아쉬운 듯 허탈하게 웃었다. 지난해 가을부터 애지중지 기른 병아리였다. 아직 알을 낳기 전의 약병아리는 몸보신에 좋은 놈이었다.

‘이야! 멋지다.’

검독수리가 약병아리를 채가는 모습을 본 영수는 제 눈을 의심했다. 검독수리는 개나 사람도 채간다는 말은 영수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이처럼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는 장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때때로 하늘에 뜬 황조롱이가 들쥐를 채는 모습을 본

적은 있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약병아리를 채가는 모습을 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였다. UFO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검독수리의 모습이 꿈속처럼 여겨졌다.

“내일부터는 닭장 문을 열지 마라. 내가 저녁때만 열고 닭을 터이니.”

닭장 문을 열지 말라는 할아버지의 엄명이 떨어졌다. 그 날 이후로 영수 할아버지는 약병아리를 들판에 내놓지 않았다. 닭장에 가두어 두고 하루에 한 번만 문을 열었다. 해거름에 닭장 문을 열어 모이를 주고는 온종일 가두어 길렀다.

“영수네 수탉도 도망간다!”

검독수리가 마을에 나타나면 암탉은 물론 수탉도 도망갔다. 나무 울타리나 수풀 속으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동네에서 제일 억센 영수네 빨간 수탉도 쫓지가 빠지게 도망갔다.

검독수리를 무서워하는 것은 비단 닭뿐이 아니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강아지도 검독수리가 나타나면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다.

“검독수리가 또 나타났다!”

검독수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쯤 영수네 마을에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검독수리의 습격을 잇을 만하면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

3) 서리 배-가을에 알에서 깨어난 서리병아리

때마다 마을에서는 한 마리의 닭이 없어졌다. 닭을 채어 간 검독수리는 늘 아랫마을 평사리 쪽으로 날아갔다.

“검독수리를 쫓아가자.”

“검독수리를 때려잡자.”

검독수리가 닭을 채어 가는 날이면 영수와 또래 친구들은 검독수리를 추적했다. 검독수리의 공격에 대비하여 지게 작대기를 들고 달려갔다. 검독수리의 등지는 영수네 아랫마을 평사리의 벼락바위에 있었다.

검독수리가 등지를 튼 바위 벼랑은 깎아지른 절벽이다. 천둥 번개를 맞아 생긴 벼랑이어서 벼락 바위라고 불렀다.

검독수리 등지가 놓인 벼락 바위 아래로는 깊고 푸른 냇물이 흐른다. 마을 사람들의 말로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했다. 방패연을 날리는 얼레의 연실이 다 풀려 들어간다고도 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때때로 이곳에 찾아와 용왕님께 가족의 소원을 빌기도 한다.

큰 내와 작은 내의 두물머리에 위치한 평사리는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안성 사람들은 형 내, 아우 내로 부르지만 진천 사람들은 큰 내, 작은 내로 부르는 냇가 마을이었다.

물빛이 조금 흐린 큰 내에는 물고기가 많았다. 붕어, 메기, 피라

미, 모래무지, 참게 등이 살았다. 물빛이 맑은 작은 내에는 버들치와 새우, 모시조개가 많았다. 그물로 갯버들의 뿌리를 훑노라면 파닥파닥 뛰는 민물새우가 수북이 담겨 왔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은 냇물에 의지하여 살았다. 마실 물은 냇가 위쪽에서 길고 목욕은 중간에서 하였으며 빨래는 냇가 아래쪽에서 하였다. 이것은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오는 규칙이었다.

“검수리가 저기 있다. 소나무 가지에 앉아있다.”

“검독수리 등지가 벼락 바위 중간에 있다.”

마침내 검독수리 등지를 발견한 아이들이 소리쳤다. 검독수리가 등지를 튼 벼락 바위는 50m 정도의 높은 암벽이었다. 검독수리는 절벽 40m 높이의 바위틈에 등지를 틀었다. 까치나 멧비둘기처럼 나뭇가지를 물어다 등지를 틀었다. 그러나 검독수리 등지는 까치집보다 엉성하고 허술했다.

검독수리 한 쌍이 평사리의 벼락바위에 등지를 튼 것은 3월 중순이었다. 등지가 마련되자마자 암놈은 꿩알 크기의 알 두 개를 낳았다. 검독수리의 알은 뽕얀 흰색에 갈색 반점이 드문드문 있었다.

알은 암수 검독수리가 번갈아가며 품었다. 검독수리가 알을 품는 시기는 영수네 암닭이 알을 품는 때와 비슷하였다.

‘빠악! 빠악!’

신록이 아름다운 오월이 왔다. 영수네 어미닭이 노랑 병아리를 데리고 사립문을 나섰다. 열두 마리의 귀여운 병아리는 어미닭을 따라 쪼르르 달려 나갔다. 어미닭이 찾아주는 먹이를 쪼거나 풀벌레를 찍으면서 너른 들판을 구경했다.

그 때였다.

‘휘익~’

논밭을 가로 질러 날아가는 시커먼 그림자가 있었다.

“꼬꼬댁 꼬꼬!”

어미닭이 급히 소리를 쳐 병아리를 품안으로 불러 모았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다. 시커먼 그림자는 노랑 병아리 한 마리를 채 가지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검독수리의 병아리 사냥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햇볕이 좋은 유월이 왔다. 검독수리는 이제 노랑 병아리를 잡아가지 않았다. 지난 가을에 서리배로 태어난 영수 할아버지의 약병아리를 채갔다. 복날이 오면 할아버지가 삼계탕으로 드실 약병아리를 잡아갔다. 약병아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니 검독수리의 새끼

들이 제법 크게 자란 모양이었다.

“이야, 여름 방학이다.”

신나는 여름방학이 왔다. 영수 또래의 마을 아이들은 매일 같이 냇가로 달려 나왔다. 1~2학년 꼬마들은 모래밭에서 놀고 3~4학년 아이들은 멍석 바위에서 물장구를 치고 5~6학년 또래들은 삼각바위에서 다이빙을 했다.

“물고기를 잡자.”

“다슬기를 줍자.”

물놀이를 하다 뽕중난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았다. 두 손으로 물 풀을 뒤져 붕어를 잡는가하면 두 발로 모래를 쓸어 모래무지를 잡기도 했다. 바위틈을 기는 다슬기를 줍기도 하고 여뀌 풀로 게 구멍을 막아 참게를 잡는 형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물놀이를 하며 큰 내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해가 설핏하면 저마다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마을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즐거운 눈으로 바라보셨다. 또래들과 어울려 씩씩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미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동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영수 할아버지가 으뜸이었다.

“영수 할아버지가 물 건너 가셨다.”

“그래, 커다란 망태를 메고 지나가셨다.”

영수 할아버지는 큰 내와 작은 내中间的 모래밭에 참외를 가꾸었다. 매일같이 참외밭을 둘러보시는 영수 할아버지는 때때로 아이들의 산타클로스였다. 할아버지는 종종 영수 또래들에게 참외를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영수 할아버지가 참외를 주시는 방법은 유별났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위쪽으로 냇물을 건너다니셨다. 그러다가 슬며시 풀망태에 담긴 참외를 흐르는 물위에 띄워 놓으셨다.

“참외다. 참외가 떠내려 온다.”

“가자. 참외를 잡으러 가자.”

상류에서 뚱뚱 떠내려 오는 참외를 발견한 아이들은 참외를 향해 돌진한다. 커다란 참외를 얻기에는 헤엄을 잘 치는 아이가 단연 유리하다. 그러나 한꺼번에 두 개의 참외를 움켜잡을 수는 없다. 두 손에 참외를 움켜잡으면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영수 할아버지는 이 점을 미리 간파하고 아이들 머릿수만큼의 참외를 냇물에 띄어 놓고 지나가는 것이다.

영수와 또래 친구들이 검독수리를 추격한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약병아리를 잡아간 검독수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수 할아버지에게 참외 선물을 받은 것이 그 얼

마인가?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검독수리를 추격하였다. 그러나 검독수리가 채간 약병아리를 되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생명줄을 타는 등반가가 아닌 다음에야 검독수리가 등지 튼 절벽을 기어 올라갈 수는 없다.

“에잇!”

아이들은 열적은 마음에 검독수리 등지를 향해 돌팔매질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던진 돌은 검독수리 등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겨우 냇물을 건너가거나 절벽 아래에 부딪쳐 ‘퐁당!’ 냇물에 떨어졌다.

영수와 또래 친구들은 심술이 났다. 지게 작대기로 벼락바위 부근의 상수리나무를 후려갈겼다. 상수리나무에서 서너 개의 상수리가 후두둑 떨어져 발밑에 굴렀다. 아이들은 잘 여문 상수리를 까서 입에 넣으며 마을로 돌아왔다. 상수리의 톱툰하고 씹쓸한 맛이 아이들의 입안에 감돌았다.

‘쓰름, 쓰름, 쓰름, 쓰름!’

쓰르라미가 울면서 신나고 즐겁던 여름방학도 끝났다. 한 여름이 지나도록 검독수리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들은 검독수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의 공로로 여

졌다. 검독수리의 둥지를 찾아가 돌팔매질로 혼내준 까닭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왔다.

“영수야, 학교 끝나거든 곧장 집으로 달려오너라.”

“예, 무슨 일이 있나요?”

“춘식이 아재와 너털이골의 밤을 털어야 한다.”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토요일 오후에 할 일을 영수에게 일러 주었다.

구곡리 아이들은 놀 새 없이 바빴다. 벼논에 날아드는 참새 쫓기와 텃밭에 익은 붉은 고추를 따야 한다. 고구마를 캐는 일도 도와야 하고 소에게 먹일 꼴도 베어야 했다. 가을걷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야 했다.

토요일 오후였다. 학교를 일찍 파한 영수는 춘식이 아저씨를 따라 너털이골로 갔다. 춘식이 아저씨는 가끔 영수네 농사일을 해주고 쌀을 얻어 가는 동네 일꾼이었다.

“영수야, 너는 자루를 들어라. 나는 장대를 들 터이니.”

영수는 춘식이 아저씨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을 쫓아 춘식이 아저씨네 개 누렁이도 따라왔다.

너털이골에는 아름다리 밤나무가 많았다. 영수 할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에 심어 가꾼 밤나무였다. 굵은 바윗돌이 나뒹구는 너털이

골에는 여러 마리의 너구리가 산다. 골짜기에는 밤, 도토리, 개암 등의 나무 열매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계곡에는 들쥐, 개구리, 뱀, 참개, 물고기 등도 많았다.

너구리는 야행성 동물이지만 낮에도 가끔 숲속에 나타날 때가 있다. 몸은 땅딸막하고 네 다리는 짧으며 귓바퀴는 작고 둥글다. 주둥이는 뾰족하며 꼬리는 굵고 짧다. 몸의 털은 길고 황갈색이며 등줄기와 어깨에는 끝이 검은 털이 많다. 얼굴, 목, 가슴 및 네 다리는 흑갈색이다.

“밤송이에 맞지 않게 조심해라!”

“걱정 마시고 어서 털기나 하세요.”

영수는 춘식이 아저씨가 터는 밤나무 아래에서 알밤을 주워 담았다. 춘식이 아저씨가 바지랑대로 밤송이를 휘갈기면 알밤이 후두둑 쏟아졌다. 영수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알밤을 주워 자루에 담았다.

그 때였다. 밤나무 고목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휙 지나갔다. 이 모습을 제일 먼저 본 누렁이가 ‘쿵!’ 소리를 내어 짚었다. 그림자의 정체는 검독수리였다.

밤나무 숲을 날아간 검독수리가 노린 것은 너구리였다. 때마침 너구리는 알밤을 주워 먹으려 굴 밖으로 나온 모양이었다. 소리

없이 날아간 검독수리는 이내 너구리의 머리를 역세게 움켜잡았다. 그러더니 곧장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살찐 너구리가 버둥대며 저항하자 쉽게 날아오를 수 없었다. 검독수리는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하고 너구리는 검독수리의 발톱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검독수리와 너구리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였다.

‘경경!’

춘식이 아저씨네 개 누렁이가 싸움판을 향해 달려 나갔다. ‘으르렁’ 소리를 내며 검독수리와 너구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감히 검독수리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주변을 맴돌면서 큰소리로 짖을 뿐이었다.

이 모습을 본 춘식이 아저씨가 너구리 사냥에 끼어들었다. 두 손을 불끈 쥐고 힘주어 바지랑대를 고쳐 잡았다. 장대높이뛰기 선수 처럼 바지랑대를 치켜들고 검독수리에게 돌진했다.

“이야아~”

춘식이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며 돌진하자 검독수리가 멈칫했다. 검독수리는 발톱으로 잡고 있던 너구리를 내려놓았다. 밤나무 고목으로 날아올라 춘식이 아저씨의 바지랑대를 피했다.

“왕, 왕!”

춘식이 아저씨의 돌진에 누렁이도 함께 달려들었다. 춘식이 아저씨의 공격에 힘을 얻은 누렁이는 이제 너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탁, 탁, 타악!”

춘식이 아저씨가 바지랑대로 너구리를 내려쳤다. 바지랑대에 맞은 너구리는 몇 걸음 도망치다가 쓰러졌다.

너구리의 몸에서 더운 기운이 확 끼쳐 졌다. 피비린내가 물씬 났다. 가까이서 살펴보니 너구리의 두 눈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렀다. 그리고 보니 너구리의 눈알이 없었다.

검독수리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너구리의 눈이었다. 너구리의 눈알을 먼저 찌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가자, 마을로 돌아가자.”

춘식이 아저씨가 쓰러진 너구리를 지게에 올려 실었다. 영수는 춘식이 아저씨를 따라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다. 그러자 검독수리가 춘식이 아저씨와 영수의 뒤를 따라 왔다. 하늘을 빙빙 날며 천천히 따라왔다. 영수는 겁이 더러웠다. 누렁이도 겁을 먹었는지 춘식이 아저씨 곁을 뱅뱅 돌며 떨어지지 않는다.

동구 밖 소나무 곁을 지날 때였다. 고추를 따던 영수 할아버지가 일손을 멈추고 물었다.

“어이, 춘식이. 어인 일인가? 그새 밤을 다 털었나?”

“아니요.”

“그런데 왜 벌써 돌아오나?”

“아, 예. 어르신, 너털이골에서 너구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밤은
내일 털기로 했어요.”

춘식이 아저씨가 의기양양해서 대답했다.

“무어? 너구리를 잡았다고?”

“예, 바지랑대로 때려잡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잔치라도 벌여야
겠어요.”

그 말을 들은 영수 할아버지의 안색이 갑자기 붉어졌다.

“예끼, 이 사람아. 따라는 밤은 안 따고 너구리 사냥을 해.”

“너구리를 잡은 일이 뭐 어때서요?”

할아버지의 나무람에 춘식이 아저씨가 볼멘소리로 대꾸했다.

“야, 이 사람아. 내일 모레면 조상님을 모시는 추석이야! 그런데
어째서 산짐승의 피를 보나? 내 집으로는 아예 들어올 생각을 말
게. 동네 사랑방에 가서 잡아먹던지 알아서 처리하게. 내 집으로
는 고기 한 점도 보낼 생각을 말게. 알아들었나? 알밤이나 이리 주
게. 내가 들고 감세.”

“아, 예.”

할아버지에게 면박을 받은 춘식이 아저씨가 뒷머리를 긁적였
다. 춘식이 아저씨는 알밤 자루를 할아버지에게 건네었다. 할아버
지는 혀를 끌끌 차며 너구리를 집안으로 들여놓지 못하게 하셨다.
춘식이 아저씨는 너구리를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건너갔다.

그때까지도 검독수리는 춘식이 아저씨의 지게에 실린 너구리를
노리고 쫓아 왔다. 동구 밖 소나무 가지에 올라 앉아 춘식이 아저
씨의 뒤를 노려보고 있었다. 검독수리는 땅거미가 저서 어두워질
때까지 동구 밖 소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어?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네.’

이튿날 아침에도 검독수리는 동구 밖 소나무에 앉아 있었다.

‘밤에 둥지로 돌아가지 않았나? 아니면 아침에 다시 찾아 왔나?’

검독수리는 너구리를 빼앗긴 일이 무척 분한 모양이었다. 한나
절을 앉아있던 검독수리는 춘식이 아저씨네 집 위를 빙빙 돌다가
사라졌다.

사흘째 아침에도 검독수리는 동구 밖 소나무에 앉아 있었다. 그
러다가 해가 머리 위에 떠오르자 춘식이 아저씨네 집 위를 빙빙
돌다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영수야. 혹시 우리 누렁이 보지 못했니?”

춘식이 아저씨가 영수를 찾아와 물었다.

“아니요. 못 보았는데요.”

춘식이 아저씨네 강아지 누렁이가 없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검독수리가 잡아 간 모양이라고 속닥였다. 너구리를 빼앗긴 일에 검독수리가 복수전을 펼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검독수리가 누렁이를 잡아가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후로 검독수리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와도 검독수리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듬해 봄이 왔다. 영수네 암탉이 또다시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았다. 노랑 병아리가 어미 닭을 따라 논밭을 돌아다녔다. 영수는 문득 병아리를 사냥하는 검독수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평사리의 벼락바위로 가보았다.

벼락바위 아래를 흐르는 물은 여전히 깊고 고요하였다. 냇물에 비친 벼락바위의 모습이 더욱 높아 보였다. 냇가에 서서 몇 시간을 기다려도 검독수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검독수리의 그림자는 커녕 산새 한 마리도 날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가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이었다. 푸른 물이 넘실대는 냇물로 떨어지다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 겨우 살아나는 꿈이었다.

꿈에서 깨어보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떤 때는 코피를 흘리기도 했다. 영수 어머니가 걱정스레 할머니의 의견을 물었다.

“어머님!”

“왜 그러느냐?”

“영수, 병원에 한번 데려가야 할까 봐요.”

“병원은 무슨 놈의 병원이나?”

“옛그제는 식은땀을 흘리더니 간밤에는 코피를 쏟았어요.”

“다 크느라고 그런다. 인삼 넣고 약병아리 한 마리 달여 먹여라.”

무서운 꿈을 꾸는 영수를 두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남한산성자연사랑’에서 다음 동물들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수리부엉이	고라니	흰꼬리수리
독수리	너구리	황조롱이
소쩍새	오소리	참수리

금강초롱꽃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사주단자⁴⁾와 비단 예물을 짊어 진 함진아비가 왔다. 눈구멍만
푹린 오징어 가면을 쓰고 왔다. 대밭 끝에 경사가 났다. 내일이면
복순이 누나가 시집을 간다.

함진아비의 들러리가 고래고래 소리친다. 동네 골목을 향하여
‘함 사세요.’를 큰소리로 외친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 나와 이 광
경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튿날이었다. 신랑 김유복 군과 신부 박복순 양은 행복예식장
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가 식장에 들어와 촛불을 밝혔다. 이어 멋
진 신랑이 들어오고 예쁜 신부가 붉은 카펫을 밟고 입장했다. 신

4) 사주단자-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보내는 종이

량은 검정 신사복에 붉은 넥타이를 맸고 신부는 하얀 드레스에 면 사포를 썼다.

“신부가 웃으면 첫딸을 낳는데”

“첫딸이면 어때, 살림 밀천인데”

결혼식장의 여기저기에서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쏟아졌다.

신랑 유복 군은 유복자였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육군 일등병의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였을 때 아버지가 전사하였으므로 이름을 유복이라 지었다. 유복이란 ‘뱃속에 남겨진 아이’를 뜻하는 말이다.

유복 군이 유복자로 태어난 것은 한국전쟁 때문이었다.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끼리 벌인 슬프고도 억울한 전쟁 때문이었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신랑 유복 군의 아버지 김태기 씨는 대밭골에 살았다. 그리고 신부 복순 양의 아버지 박현성 씨는 용천골에 살았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서당에 다니면서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일손을 돕고 자라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가 되었다.

두 사람이 열아홉 살이 되던 해였다.

“현성아, 나 장가간다.”

“뭘, 나보다 먼저 장가를 간다고? 이런 의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미안하다. 일이 그렇게 되었다. 하하하”

“알았다 인마. 잘 먹고 잘 살아라.”

태기 씨가 먼저 장가를 갔다. 태기 씨는 이웃 마을의 순이 아가씨와 결혼을 하였다. 태기 씨가 장가가는 날 새벽에 첫눈이 왔다.

“어라! 밤사이 첫눈이 내렸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잘 살겠구먼”

“그러게 말이요. 하늘도 축복을 내리는군요.”

두 사람의 결혼을 두고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한 마디씩 했다.

한낮이 되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신랑의 결혼 행렬이 동구 밖에 나타났다. 동네 아이들이 먼저 뛰어 들어와 이 소식을 전했다.

“신랑이 와요.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와요!”

“신랑이 와요. 백마를 타고 와요!”

사모관대⁵⁾를 갖춘 신랑이 눈 위에 하얀 말발자국을 남기며 신부 집으로 들어왔다. 전통 혼례식은 신부 댁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신랑, 신부는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았다.

다음 날이었다. 신부 순이 씨가 꽃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다. 원삼⁶⁾ 족두리⁷⁾를 곱게 차려 입고 신랑을 따라 갔다. 결혼 행렬이 대

5) 사모관대-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착용하는 옷과 모자

6) 원삼-전통 혼례식에서 신부가 차려 입는 비단옷

7) 족두리-부녀자들이 예복을 입을 때에 머리에 얹던 관의 하나

밭 골에 이르자 동네 아이들이 먼저 나와 이 소식을 전했다.

“신부가 와요.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와요!”

“신부가 와요. 꽃가마를 타고 와요!”

신랑 태기 씨와 신부 순이 씨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두 사람이 결혼한 다음 해에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다.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피 흘리며 싸우는 한국전쟁이 터졌던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였다. 북한 공산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남한을 공격하였다.

“북한 공산군의 탱크가 한강다리를 건넜대요.”

“먹을 것을 싸서 어서 피난을 가야 해요.”

전쟁이 나자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젊은이는 군인으로 징집되고 부녀자와 어린이는 피난을 가야 했다.

북한 공산군의 탱크부대는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으로 진격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공산군의 탱크부대에 밀려 대구까지 쫓겨 갔다.

1950년 9월 15일이었다.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을 탈환하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하였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16개 나라에서 7만 여의 병력과 무기가 지원되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고립된 북한 공산군이 태백산맥을 타고 북으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1950년 9월 16일이었다.

“낙동강을 건너 대전으로 진격하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때를 같이 하여 국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추풍령을 넘어 대전을 탈환하고 한강을 건너 수도 서울로 진격하였다.

1950년 9월 21일이었다.

“유엔군과 연합하여 서울을 탈환하라.”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다. 이어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계속하였다.

“영장이요, 국군에 입대하라는 명령이요.”

그즈음 국방부 병무청에서 각 부락의 젊은이에게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용천 골의 박현성 씨도 대밭 골의 김태기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입영통지서에 따라 스무 살 청년이었던 현성 씨와 태기 씨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입대하였다.

국군으로 입대한 두 사람은 한 달여의 군사 훈련을 받았다. 훈

련을 마치고 갈매기 하나의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다. 그리고 육군 제6사단 19연대 7중대 3소대에 나란히 배속되었다.

1950년 11월,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진격하였다.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간 국군과 유엔군은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51년 1월 4일이었다.

중국 공산군이 북한 공산군을 편들면서 한국전쟁에 끼어들었다. 소련 공산군의 탱크 지원에 이어 중국 공산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다시 후퇴하였다.

1951년 5월 17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서울을 다시 빼앗으려다 실패한 중공군이 동부전선으로 몰려왔다. 유엔군이 지키는 서부전선에서 국군이 지키는 동부전선으로 공격의 방향을 바꾸었다.

“중공군이 몰려온다. 새까맣게 몰려온다.”

북과 썰매를 요란하게 치며 중공군이 몰려왔다. 중공군 제63군 3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중공군의 공격으로 육군

제3군단은 강원도 현리전투에서 참패했다. 이어 동해안을 지키던 제1군단도 중공군에 크게 패배하였다.

“후퇴하라! 경기도 양평으로 후퇴하라!”

육군 총사령관의 후퇴 명령이 떨어졌다. 중공군에 패배한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했다. 그 뒤를 중공군이 바짝 쫓아왔다. 강원도 홍천에서 경기도 양평으로 몰려왔다. 이에 육군 제6사단 19연대 소속의 박헌성 일등병과 김태기 일등병도 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진지를 구축하라! 서둘러 강둑에 진지를 구축하라!”

후퇴하던 육군 제6사단 19연대 병사들이 중공군과 싸울 준비를 하였다. 강원도 홍천강과 청평강 남쪽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중공군이 강을 건너오기를 기다렸다.

1951년 5월 19일이었다.

육군 제6사단장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공격하라!”

“탕, 타타타타탕!”

육군 제6사단과 중공군 3개 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육군 제6사단 병사들은 강을 건너오는 중공군을 향하여 빗발처럼 총탄을 쏘아댔다. 박헌성 일등병과 김태기 일등병도 전선의 맨 앞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다음 날인 5월 20일이었다. 홍천강을 지키던 육군이 중공군에게 밀리기 시작하였다. 육군 제6사단의 세 배가 넘는 중공군 3개 사단의 수효를 당할 수가 없었다.

“사단장님, 적군의 수효가 너무 많습니다. 아군이 불리합니다.”

“흐음!”

사단장님이 쓴맛을 다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후퇴하라. 용문산으로 후퇴하여 진지를 구축하라. 서둘러라.”

이날 오후, 육군 제6사단 19연대는 개미떼처럼 몰려오는 중공군에 밀려 후퇴했다. 중공군에 쫓겨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용문산으로 들어갔다. 19연대 소속의 박현성과 김태기 일등병도 용문산 장군봉으로 급히 후퇴했다.

용문산 장군봉에는 고려시대에 쌓은 함왕산성이 있었다. 고려시대 우리 군사들이 몽고군과 대치하며 싸우던 산성이었다.

육군 제6사단 19연대는 용문산 함왕산성에 진지를 구축하고 중공군과 맞섰다. 산성에 몸을 의지하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중공군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점점 육군 제6사단 19연대에게 불리하였다. 19연대 병력보다 10배나 많은 중공군의 인해전술⁸⁾로 병사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잔불이었다. 총탄과

8) 인해전술-우수한 무기보다 많은 병력 투입으로 적을 압도하는 전술

수류탄은 물론 마실 물과 먹을 식량도 점차 바닥이 났다. 모두가 전사하거나 아니면 모두가 중공군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이었다. 중공군이 점차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제 육군 19연대는 더 이상 후퇴할 곳도 없었다. 진퇴양난이었다.

“연대장님, 적군이 까맣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뢰망을 터뜨릴까요?”

박소위가 급히 전선의 다급한 상황을 보고하며 연대장의 명령을 기다렸다.

“기다려라. 적군이 지뢰밭에 들어서기 전에는 점화하지 마라.”

연대장님이 침착하게 기다릴 것을 명령하였다. 그때였다. 적의 포탄이 박소대장의 참호⁹⁾에 날아들었다.

“꽝!”

순식간의 일이었다. 적의 포탄에 참호가 날아가고 박소대장의 철모가 땅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소대장님, 소대장님!”

박소대장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문하사가 달려갔다. 문하사가 박소대장의 얼굴을 끌어안고 외쳤다.

9) 참호-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

“소대장님. 정신 차리세요.”

“문하사, 지뢰를, 어서 지뢰를……”

함왕산성을 따라 설치한 지뢰망을 터뜨리라는 명령이었다.

그때였다. 19연대 소속의 김태기 일등병이 적진으로 뛰어 들었다. 까맣게 몰려오는 중공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마구 쏘며 달려 나갔다. 순간, 중공군의 총구가 일제히 김태기 일등병에게 집중되었다. 적군의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졌다.

“앗!”

김태기 일등병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나뒹굴었다. 오른쪽 가슴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박헌성 일등병이 급히 달려 나갔다.

“위생병, 위생병!”

위생병을 부르는 박헌성 일등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위생병이 구급약이 담긴 가방을 메고 달려왔다.

그 때였다. 문하사가 지뢰망의 스위치를 눌렀다.

“꽝, 콰콰콰콰!”

최후의 저지선에 묻어 놓은 지뢰가 연달아 터졌다. 수백 개의 지뢰가 연달아 터지는 폭발음이 용문산을 뒤흔들었다. 부르르 산이 흔들리고 돌덩이와 흙먼지가 우박처럼 쏟아졌다. 포위를 좁혀오던 중공군이 낙엽처럼 우수수 쓰러졌다. 그 위로 함왕산성의 돌덩

이가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산성을 기어오르던 수천 명의 중공군이 성돌에 깔려 죽었다.

도화선으로 연결한 수백 개의 지뢰를 터뜨리자 중공군이 움찔하여 물러났다. 이어 희뿌연 화약연기와 함께 땅거미가 천천히 내려 깔렸다.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다.”

19연대 병사들이 함왕산성에 올라 만세를 외쳤다. 지뢰와 성돌에 쫓겨 도망가는 중공군을 향해 승리의 만세를 불렀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가슴에 총탄을 맞은 김태기 일등병은 살아 날 가망이 없었다.

“태기야, 정신 차려! 이렇게 죽으면 안 돼.”

박헌성 일등병이 김태기 일등병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박헌성 일등병의 간호에도 불구하고 김태기 일등병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졌다.

“물, 물!”

김태기 일등병이 물을 찾았다. 박헌성 일등병이 얼른 수통을 꺼내 김태기 일등병의 입에 가져다 뒀다. 물 한 모금을 마신 김태기 일등병이 마지막 말을 남겼다.

“헌성아, 우리 가족을 부탁한다.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사랑

하는 아내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리고…….”

김태기 일등병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무엇인가 부탁할 말을 끝내 하지 못하고 박헌성 일등병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김태기 일등병은 용문산 900고지의 전투에서 적탄을 맞고 그렇게 전사하였다.

“태기야 죽지마라. 태기야 눈을 떠 봐.”

고향 친구를 잃은 박헌성 일등병이 피눈물을 흘렸다. 밤새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목숨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 19연대 연대장님은 김태기 일등병의 목에 걸린 군번 명찰을 회수하였다.

그날 밤, 박헌성 일등병과 19연대 7중대 전우들은 장군봉 기슭에 김태기 일등병을 묻었다. 급히 나무를 깎아 김태기 일등병의 묘 앞에 비목을 세웠다. 그리고 군가를 힘차게 불러 김태기 일등병의 숭고한 죽음을 추모하였다.

전우야 잘 자라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추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이송이 피어나 반기어주는
노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삼팔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꽃 같이 아름답던 스무 살 청춘의 김태기 일등병은 그렇게 스러

졌다. 피 끓는 전우들의 가슴속에 파란 별이 되었다.

다음 날인 5월 21일 새벽이었다. 국군 제6사단 7연대가 달려왔다. 용문산 함왕산성에 갇힌 19연대를 구하기 위해서 산 아래에서 중공군을 다시 포위하였다.

7연대의 지원으로 19연대를 포위했던 중공군이 거꾸로 포위되었다. 19연대를 포위했던 중공군은 육군 제6사단 7연대와 19연대의 2중 포위망에 갇혔다.

“중공군이 포위됐다. 이제 승리는 우리 것이다.”

연대장님이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했다. 이에 힘을 얻은 19연대는 중공군에게 반격을 가하였다. 태극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이마에 두르고 용감하게 싸웠다. 그리하여 중공군 21,550명을 사살하고 포로 2,617명을 사로잡았다. 이날의 경기도 용문산 지구 전투는 육군 제6사단의 커다란 승리로 장식했다.

“중공군이 도주한다. 추격하라.”

용문산 지구 전투에서 패배한 중공군은 북으로 도주하였다. 육군 제6사단은 중공군의 뒤를 추격하여 공격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홍천강과 청평강을 건너 달아나는 중공군을 강원도 가평과 화천까지 쫓아갔다.

1951년 6월 1일이었다.

“꼬끼오~”

김태기 일등병의 고향인 대밭골에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고한 닭 울음소리에 이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는 용문산 전투에 참가한 김태기 일등병의 집에서 들렸다. 김태기 일등병의 부인 순이 씨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한 것이다. 용문산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김태기 일등병의 아들이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름을 ‘유복’이라 지었다.

1953년 7월 27일이었다.

“만세! 전쟁이 끝났다.”

“만세! 국군 만세! 만세! 유엔군 만세!”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마침내 휴전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남북한의 휴전 협정으로 3년 1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북위 38° 선을 경계로 서류상의 남북한 휴전이 성립되었다.

“우리 가족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이 포탄으로 날아갔어요.”

전쟁은 끝났으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잃은 것은 너무 많았다.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모여 살던 집이 포탄에 맞아 불타 버렸다. 거리에는 집과 가족을 잃은 고아들이 떠돌아 다녔다. 일본의 속박에서 겨우 해방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다시 폐허가 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이 컸다. 전쟁 중에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300만 명이었으며 북한 공산당에 납치되거나 실종된 사람이 약 187만 명이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부끄럽고 끔찍한 전쟁이었다.

1953년 9월 1일이었다.

“만세! 군에 갔던 아들이 돌아온다.”

전쟁이 끝나자 용문산 전투에 참가하였던 박헌성 상등병이 집으로 돌아왔다. 두 계급이나 올라간 박헌성 상등병은 빛나는 훈장을 가슴에 달고 용천골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박헌성 상등병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김태기 일등병의 집이었다. 용문산 지구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우고 전사한 김태기 일등병의 집을 찾아갔다. 국가에서 김태기 일등병에게 수여하는 화랑무공훈장을 들고 찾아갔다.

아들 친구가 대밭 골을 찾아오자 김태기 일등병의 가족은 또다시 통곡했다. 재작년에는 김태기 일등병의 전사통지를 받고 통곡

했고, 오늘은 박헌성 상등병이 가져온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또 한번 통곡했다.

그때였다. 김태기 일등병의 유언이 박헌성 상등병의 귓전을 때렸다. 김태기 일등병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끝내 하지 못한 말이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리고 내 아이를 부탁한다.”

김태기 일등병이 숨을 헐떡이며 끝내 잊지 못한 말은 이것이었다. 그것은 혹여 내가 전사하면 뱃속에 남겨진 아이를 돌봐 달라는 말이었다.

박헌성 상등병은 순이 씨의 품에 안긴 김태기 일등병의 아들을 넘겨받았다. 친구의 아들 유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리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머리를 끄덕이며 약속하였다.

‘그래, 친구의 부탁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네. 자네의 아들 유복이를 내 아들로 삼겠네.’

1953년 9월 10일이었다.

김태기 일등병의 가족이 용문산을 찾아갔다. 박헌성 상등병을 따라 용문산 전투에서 숨진 김태기 일등병의 무덤을 찾아갔다.

“경기도 용문산에는 세계적인 식물 두 가지가 자란다.”

김태기 일등병의 아버지가 말문을 열었다.

“그 중에 하나는 은행나무 아닌가요?”

박현성 상등병이 용문산 은행나무를 맞추었다.

“그래, 용문산 은행나무란다. 용문산 은행나무는 대한민국은 물론 동양에서 가장 멋진 나무이지. 가을이 되면 용문산 은행나무는 신라왕이 썼던 찬란한 금관을 떠오르게 한단다.”

용문산 은행나무를 지나 해발 940m의 장군봉에 오르는 산길은 매우 힘들었다. 바위투성이의 산길을 2시간 쯤 힘들게 오르자 장군봉이 보이고 함왕산성이 나타났다.

김태기 일등병의 무덤은 장군봉 서쪽 기슭에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였다. 김태기 일등병의 묘지 앞에는 나무로 깎아 세운 허름한 비목이 서있었다.

비목에는 ‘고 김태기 일등병 이곳에 잠들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비목은 김태기 일등병의 고향 친구 박현성 상등병이 세운 것이었다.

가족들은 무덤에 난 잡초를 뽑은 후에 과일을 차려놓고 술을 따라 올렸다. 이어 두 번 절하고 김태기 일등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였다.

성묘를 마친 가족들이 묘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 산기슭에 이름 모를 보라색 가을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

고 유복이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여쭙었다.

“아버님, 산기슭에 이름 모를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그렇구나!”

“저 꽃이 무슨 꽃이지요?”

“글쎄다. 그 모습이 청사초롱을 닮기는 하였다마는”

그러자 유복이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혹시 금강초롱꽃이 아닐까요? 전통 혼례식을 할 때 앞세우는 청사초롱을 닮았어요.”

“할멈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청사초롱을 그대로 빼어 닮았어요.”

그러자 박현성 상등병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다.

“아버님, 그리고 보니 참 신기한 일이군요. 이 능선에서 여러 명의 전우들이 전사하였어요. 저 꽃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서 쓰러진 전우들의 모습이 떠오르는군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저 꽃들은 이곳에서 산화한 우리 아들의 넋이라고 생각되는구나!”

할머니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빛깔이 참 곱기도 하지요?”

“그러게 말이요. 죽은 아들이 나를 보고 환히 웃는 것처럼 보이

는구려!”

태기 씨의 가족들은 보라색 금강초롱꽃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금강초롱꽃을 보며 용문산 지구 전투에서 산화한 태기 씨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사랑스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태기 씨의 아내는 그리운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친구 현성 씨는 씩씩한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 후로도 태기 씨의 가족은 매년 9월이면 용문산 장군봉을 다녀갔다.

그로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렀다. 용천골의 82세 노인이 돌아가셨다. 그 분은 다름 아닌 한국전쟁에 참가하였던 박헌성 상등병이었다. 박헌성 상등병은 용문산 지구 전투에서 빛나는 공을 세운 국가유공자였으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국립현충원으로 이송된 박헌성 상등병의 관에 태극기가 덮였다.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내리는 빛나는 태극기였다. 일동 묵념을 알리는 주악이 울리고 현성 씨의 관이 땅속으로 내려졌다.

장례식의 앞줄에는 김유복 씨와 박복순 씨가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다. 박헌성 상등병은 자신의 딸과 친구의 아들을 결혼시켜 사위로 삼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더 지났다. 대밭골 김유복 씨의 어머니

순이 씨가 노환으로 자리에 누웠다. 병석에 누운 유복 씨의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힘들게 입을 떼셨다.

“아범아, 금강초롱꽃이 보고 싶구나!”

“예, 어머니. 용문산 금강초롱을 보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 올해도 보랏빛으로 곱게 피었겠지?”

“그럼요. 벌써 한 여름도 다 지난 9월인걸요.”

“그래, 용문산 금강초롱꽃은 9월 1일이면 꼭 피지. 네 아버지의 태극무공훈장이 오던 날이면 어김없이 핀단다.”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늙고 병이 들어 걷지를 못하니 어떻게 금강초롱꽃을 볼 수 있겠니?”

“알았어요. 제가 얼른 용문산에 다녀올게요.”

“어떻게 다녀온다는 말이나? 꽃이라도 꺾어 올 참이나?”

“아니에요. 올해는 동영상으로 찍어 올 게요. 제일 예쁘게 핀 금강초롱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아 올게요.”

“그럼, 그래야지. 혹여 금강초롱꽃을 꺾거나 뿌리를 캐올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말아라. 용문산 금강초롱꽃은 돌아가신 너의 아버님과 전우들의 뉘이야. 너도 잘 알지.”

“아무렴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모를까봐서요. 걱정 마세요 어

머니. 사진으로도 찍어 액자에 넣어 올게요.”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나 대신 은지를 데려 가거라.”

“아, 예. 은지에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말 씀이시지요?”

“그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할아버지의 마음이 금강초롱꽃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가르쳐 주렴.”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예쁜 금강초롱꽃 기대하세요.”

“그래그래, 귀여운 우리 손녀, 어서 다녀오너라.”

할머니의 전송을 받은 은지가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아버지의 배낭에는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가 담겨 있었다. 금강초롱꽃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각오였다.

“아버지, 금강초롱꽃이 어떤 꽃이에요?”

용문산을 향해 달리는 차안에서 은지가 아버지에게 여쭙었다.

“응, 할머니가 좋아하는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에만 피는 꽃이야. 경기도 이북의 고산지대에서만 자란다. 강원도 금강산과 설악산, 경기도 용문산과 유명산 등에 자생하지. 보랏빛과 흰빛을 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금강초롱꽃은 금강산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금강초롱꽃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금강초롱꽃을 캐다가 우리 집 화단에 옮겨 심으면 안 되나요?”

“안 되지, 안 되고말고. 금강초롱꽃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만 서식한다. 고도가 낮은 곳에 옮겨 심으면 영롱한 보라색 꽃빛이 흐려진단다. 서늘한 기후와 부엽토를 좋아하므로 화단에 심으면 몇 해 못살지. 그러니까 산에서 캐어 집에다 심으려는 욕심은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조금 힘들더라도 높은 산에 올라 감상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은지는 아버지를 따라 땀을 뻘뻘 흘리며 용문산 장군봉을 향해 올라갔다. 그 시간, 은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 너머로 가을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가을 햇살이 참 좋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다. 주름진 입가에 얹은 미소를 지으며 가을게 실눈을 떴다.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은지 할머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 옛날 청사초롱을 밝히며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날을 생각하실까? 아니면 청사초롱을 앞세우고 말 타고 장가오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실까?

금강초롱꽃처럼 맑고 고운 가을 햇살이 방안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마파람의 꽃 이야기’ 에서
다음 식물들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용문산 은행나무		
금강초롱꽃	초롱꽃	섬초롱꽃
모식대	잔대	도라지

반딧불이 화장실

“우와, 도서관이 새로 생겼네!”

학교 현관에 도서관이 마련되었다. 며칠 전에 들여온 책장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많았다. ‘먼 나라 이웃나라’, ‘그리스 로마신화’, ‘메이플 스토리’ 등이었다. 새 책을 읽으려고 아침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 새로 부임하신 교장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책을 읽는 습관은 좋아졌지만 청소하는 태도는 나빠졌다. 아침 시간에 책을 읽느라 담당구역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어휴, 재수 없어. 4학년 때도 화장실 청소 당번이더니 또 걸렸어”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청소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 하기는 담당

구역 청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친구가 몇이나 될까? 하나 아니면 둘? 더구나 그 냄새도 향기로운 화장실 청소라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뻔질이들만 모였으니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회시간이었다. 담임선생님께서 엉뚱한 퀴즈를 하나 내셨다. 정답을 맞힌 사람에게는 초코파이를 주겠다고 하셨다.

“독서실과 화장실의 공통점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독서실과 화장실의 세 가지 공통점이요?”

아이들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저마다 정답을 발표했다.

“둘 다 조용합니다.”

“둘 다 앉아 있습니다.”

“둘 다 실자가 들어있습니다.”

아이들의 대답은 가지각색이었다.

아이들의 발표를 듣던 선생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 저었다.

“아냐, 그런 대답은 좀 썰렁하다. 이 문제는 넌 센스 퀴즈라니까.”

선생님은 빙글빙글 웃기만 하시면서 좀처럼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더니 칠판에다 세 가지 공통점을 커다랗게 쓰셨다.

“하나, 학문에 힘쓴다.”

“학문에 힘쓴다고요? 으하하, 웃긴다, 향문에 힘쓰대”

우리들이 깔깔대며 웃자 선생님께서는 또 하나의 정답을 쓰셨다.

“둘, 학문을 넓힌다.”

“학문을 넓힌다고요? 으흐흐, 배꼽이다. 향문을 넓힌대”

우리들이 배꼽을 잡고 웃자 선생님께서는 또 한 줄의 정답을 쓰셨다.

“셋, 학문을 닦는다.”

“학문을 닦는다고요? 이히히, 정말 웃긴다. 향문을 닦는데”

아이들이 한바탕 깔깔거리고 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우리가 갓난아기였을 때는 누구나 똥을 싸다. 여기 있는 선생님도 너희들도 모두 똥을 싸서 똥쌌다. 그 때에 내 향문을 닦아준 사람은 고마운 어머니이셨지.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이 싸는 똥을 받아 주는 분(?)은 바로 화장실이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자. 또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자, 응?”

“예, 선생님.”

우리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큰소리로 씩씩하게 대답하였다.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화장실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향문을 닦아주던 어머니만큼이나 고마운 분(?)이었으니까.

그러나 선생님과 약속은 그때뿐이었다. 막상 화장실에 들어가

면 그리 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은 그때마다 달랐다. 대답은 시원하게 하였지만 화장실 청소는 시원하게 되지 않았다. 변기는 여전히 막혔고, 한 번 막힌 변기는 선생님이나 학교 아저씨의 손이 가기 전에는 절대로 뚫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체육시간에 비가 왔다. 운동장 체육을 하지 못하게 되자 보건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셨다. 보건선생님은 질병 예방과 화장실 사용법에 대하여 강의하셨다.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수도가 없던 시절이어서 푸세식 화장실은 없었지요. 그래서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매우 고약했어요.”

“선생님, 고약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건선생님의 말씀에 아이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옛날에는 전깃불이 없었고 화장실은 집밖에 있었어요.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영하 10도로 내려가는 추운 겨울밤에 용변이 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날씨가 추워서 화장실 가기가 싫었을 겁니다.”

“전깃불이 없어서 화장실 가기가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 가지 방법이 동원

되었지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ですよ.”

“그게 무엇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이름은 어려운 말로 야호(夜壺)라고 하지요.”

“야호라고요? 산에 가서 소리칠 때 하는 소리를 말하는가요?”

아이들은 ‘야호’라는 낱말에 어리둥절하였다.

“아니지요. 추운 겨울밤에 화장실에 가지 않고 방안에서 해결하는 도구 말이에요.”

“아하, 이제 알겠어요. 요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맞았어요. 대현이가 잘 알아냈어요. 야호는 바로 요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밤 야(夜), 병 호(壺)예요. 추운 겨울에 이보다 더 좋은 이동식 화장실은 없었어요.”

“선생님, 요강은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이래요.”

“그래요. 꽃무늬가 새겨진 요강을 외국 관광객이 사간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름에는 어떤 고약한 사태가 발생하였을까요?”

보건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맞았어요. 푸세식 화장실에서는 냄새가 많이 났어요, 또요. 또

어떤 고약한 사태가 발생했을까요?”

아이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다. 그러자 보건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힌트를 주겠어요. 4학년 과학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곤충입니까?”

과학 공부를 좋아하는 대현이가 물었다.

“맞아요. 곤충입니다.”

“곤충이라면 모기 아니면 파리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파리에요. 여러분, 초파리에 대해서 4학년 때 배웠지요?”

“예”

“초파리는 포도껍질과 같은 과일에만 붙어 다녀요. 그러나 똥파리는 똥은 물론 온갖 음식에 붙어 다니지요. 그래서 참 고약했어요. 푸세식 화장실에는 수 천, 수 만 마리의 구더기가 득실거렸어요. 어이구! 생각 만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선생님, 구더기가 똥파리의 애벌레인가요?”

영웅이가 구더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맞아요. 구더기는 똥파리의 애벌레예요. 초파리 애벌레보다 20배는 크지요.”

그때였다. 깔금쟁이 수정이가 볼멘소리로 투덜거렸다.

“선생님, 곧 바로 점심시간인데 똥파리를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푸세식 화장실의 단점을 이야기 하다 보니 그리되었네요. 그 것뿐이 아니에요. 다 자란 구더기는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와요. 그리고는 번데기가 되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푸세식 화장실을 가지 않았어요. 숲속에 가서 용변을 보기도 하였지요. 그런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의 수세식 화장실은 특급 호텔이에요.”

아이들은 그제야 푸세식 화장실을 사용한 어른들의 고통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보건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푸세식 화장실에서 퍼낸 똥 오줌으로 무와 배추를 가꾸어 먹었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래서 회충, 요충, 편충과 같은 기생충에 아이들이 시달렸으며 그래서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손을 꼭 씻어야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용변을 보고 나서 휴지가 없어 호박잎으로 항문을 닦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짚으로 항문을 닦기도 했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치질이라는 질병에 걸리기도 했어요. 따뜻한 물로 닦아야 할 항문을 찢끄러운 호박잎이나 지푸라기로 씻었으니 오죽하겠어요.”

“선생님, 치질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예, 치질은 항문이 별칭게 붓거나 항문에 콩알만 한 뿔두라지가 생기는 질병입니다. 치질이 생기면 용변을 보기가 어렵지요.

항문에 힘을 주면 아프기도 하려니와 심하면 뽀두라지가 터져 피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제야 아이들은 수세식 화장실의 고마움을 진실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은 광고산 ‘반딧불이 화장실’을 견학하기로 하였다.

토요일 오후에 찾아간 반딧불이 화장실은 아름답고 깨끗했다. 화장실 창문으로 파란 물빛의 광고 저수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였다. 비발디의 4계를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잔잔한 물결처럼 흐른다. 겨울에는 안방처럼 따뜻하고 여름에는 동굴처럼 시원하다. 어디선가 가끔씩 내뿜는 풀 향기는 숲속에 온 느낌을 들게 한다. 벽면에는 화기들의 꽃 그림이 눈높이로 걸려있고 한편에는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는 시설도 갖추었다.

‘어라? 동화책도 준비되어 있네.’

꽃 그림이 걸린 벽면 아래에 자그마한 책꽂이와 서너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책꽂이에는 신문과 잡지, 동화책과 시집 대여섯 권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책꽂이를 발견한 지연이가 외쳤다.

“선생님, 독서실과 화장실의 공통점이 여기 있어요.”

지연이의 큰 소리에 아이들이 깔깔 웃었다. 과연 그랬다.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넓히고 학문을 닦는 독서실이 화장실에 갖추어져 있었다.

“내가 먼저야.”

“아냐, 내가 먼저 쓸 거야.”

용변이 마렵지도 않은 아이들이 우르르 줄을 섰다. 동화책을 먼저 보려고 의자를 가로 쳤다. 변기에 먼저 앉아 보려고 앞을 다 투었다.

“야, 빨간불이 반짝인다.”

“정말, 반딧불이처럼 깜박이네!”

화장실에 손님이 들면 ‘사용 중’의 불빛이 깜박였다. 캄캄한 밤 하늘에 빛나는 개똥벌레를 생각나게 했다.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걸”

화장실에 들어간 영웅이가 변기에 앉아 흥얼거렸다.

“야, 너는 응가하면서 노래를 하냐?”

“그래 인마, 그렇다 어쩔래?”

영웅이가 차례를 기다리는 대현이의 약을 올리며 뭉그적거렸다.

창 너머로 광고산 형제봉이 영웅이의 엉덩이를 슬그머니 들여다 보며 웃었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에서 반딧불이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늦반딧불이	반딧불이 숙주	반딧불이 화장실
애반딧불이	반딧불이 애벌레	

금강소나무

‘구구~구구, 구구~구구’

“효성아, 저 새 소리 좀 들어 봐라, 참 아름답지?”

“예, 외삼촌. 산비둘기 울음소리 같은데요.”

“그래, 멧비둘기 울음소리야. 산에 오면 나는 마음이 편해진단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에 취하고 풀꽃 향기에 푹 빠진단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선물이야.”

“저도 그래요. 가재가 사는 산골에서 살고 싶어요.”

3년 전이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던 외삼촌이 고향으로 이사를 했다. 속리산국립공원 부근으로 내려와 전원생활을 시작하

셨다. 기관지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외삼촌이 마침내 산촌생활을 선택하신 것이다.

외삼촌이 정착한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는 소나무가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마을에 세 그루의 큰 소나무가 있어 삼송리로 불렸다. 마을 뒷산에는 왕송(王松)으로 불리는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었다. 천연기념물 제290호로 보호되는 왕소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수호신이었다. 마을 어른들은 해마다 정월 대보름날에 고사를 드렸다. 왕소나무를 찾아가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다.

추석 연휴를 맞아 효성이네 가족도 고향으로 내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성묘도 하고 이웃 마을에 사는 외삼촌댁에 가서 농사일도 거들었다. 빨갭게 익은 고추도 따고 토실토실한 알밤도 주웠다. 그리고 오늘은 외삼촌을 따라 자연산 버섯을 따러 가는 날이다.

효성이는 외삼촌과 함께 속리산으로 향했다. 속리산 동북능선에 들어서자 산바람에 솔향기가 진하게 느껴졌다.

“외삼촌, 숲에서 송편 냄새가 나요.”

“하하하, 숲에서 송편 냄새가 난다고? 숲에서 송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송편에서 솔향기가 나는 거겠지.”

“맞아요. 소나무 숲에서 솔향기가 나요.”

“나무들이 우거진 숲은 공기를 맑게 해 주지. 나무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준단다. 그래서 학자들은 숲을 인간의 허파에 비교하기도 하지.”

“알아요. 그래서 아마존(Amazon)의 밀림이나 시베리아의 타이가(Tiger) 숲을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대요.”

“우와, 우리 효성이 대단한데. 지구를 지키는 환경 수비대 같구나!”

외삼촌의 칭찬에 효성은 우쭐해졌다.

“숲은 또 홍수의 피해를 막아 주기도 하지요. 나무와 풀뿌리는 빗물에 흠이 쓸려가지 않게 하고요. 그래서 숲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의 숲은 연간 180억 톤의 물을 저장한단다. 소양강 댐의 10배에 해당하는 물이지. 그러니까 숲은 지구에서 가장 큰 녹색 댐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맞아요, 외삼촌. 숲은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제공해요. 생활에 필요한 가구나 종이를 만드는 데 나무를 이용하잖아요. 또 숲에서 나는 버섯이나 나물은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약초는 질병을 치료할 때에도 이용하대요.”

“그렇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숲을 아낄 줄을 모른다. 산의 나무를 베어 내기만 했지 심어 가꿀 줄을 모른다. 지난 일요일, 속리산 정이품송을 살펴보고 깜짝 놀랐단다.”

“깜짝 놀라다니요, 왜요?”

“응, 그건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정이품송도 깊은 상처를 입고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이야.”

“외삼촌, 정이품송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럼,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에 있는 정이품송(正二品松)은 천연기념물 103호로 지정되었어.”

“정이품송은 우리 동네 왕소나무와 비슷한가요?”

“아니, 둘 다 600년을 산 소나무이지만 그 모습은 매우 달라.”

“어떻게 다른데요?”

“음, 그러니까 속리산 남쪽에 위치한 정이품송은 천하대장군처럼 의젓하지만 속리산 북쪽에 위치한 왕소나무는 지하여장군처럼 아름답지.”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의 모습으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정이품송을 할아버지 나무라면 왕소나무를 할머니 나무라고 할 수 있지. 마을 사람들이 두 나무를 부부 소나무로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지.”

“부부 소나무요?”

“그래, 정이품송이 남편이면 왕소나무는 아내이지. 오늘 우리는 왕소나무의 짝인 정이품송을 보러 가는 거야. 정이품 벼슬을 받은 사연이 또 재미있지.”

“어떤 이야기인데요?”

“1464년 조선 시대의 일이었어.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속리산법주사로 행차하는 중이었지. 왕이 탄 가마가 소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어. 그런데 소나무가 가지를 저절로 들어 올려 가마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였지. 그 일로 세조가 이 소나무에 정이품의 벼슬을 내렸어. 그래서 정이품 소나무라고 불린단다.”

“세조가 속리산으로 행차한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좋은 질문이야. 세조는 속리산법주사에 머물며 삼림욕을 하였어. 임금의 몸에 아토피 같은 피부병이 있어 몹시 가려웠거든”

“아토피요? 우리 반에도 저처럼 아토피로 고생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 아토피를 치료하자면 소나무가 무성한 계곡에서 목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야. 그래서 세조도 속리산 솔숲에서 목욕을 하신 거야. 요즈음 등산객들이 말하는 알 탕을 하신 거지.”

“알 탕이요?”

“그래, 산을 좋아하는 등산객들이 계곡에서 알몸으로 목욕하는 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세조 임금의 아끼던 정이품송도 최근에는 솔잎혹파리의 병충해를 입었어. 그리고 태풍으로 나뭇가지가 부러져 치료를 받기도 하였지.”

“그런 정이품송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요?”

“그래, 사실이야. 너 소나무에 상처를 내면 무엇이 흘러나오는 줄 아니?”

“아니, 잘 몰라요. 무엇이 흘러나오는데요?”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끈적끈적하고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와. 그걸 송진이라고 하지. 사람에 비교하면 피와 같은 수액이야. 송진이 흘러나와서 벗겨진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지.”

“그런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송진을 채취하여 여러 가지 원료로 쓴단다.”

“송진을 어디에 쓰는데요?”

“첫째는 연료로 썼어. 자동차나 비행기의 연료로 썼지. 시골에서는 소나무 뿌다구니를 꺾어다가 밤에 불을 밝히기도 했어. 그걸 광솔 불이라고 하지. 유관순 누나가 3.1독립운동을 할 때 산위에서 밝힌 횃불도 광솔 불이야.”

“그래서 금강송으로 지은 국보 1호 남대문이 그렇게 활활 타버

리고 말았군요. 소방관들이 쓴 물대포를 맞고도 쉽게 꺼지지 않았군요.”

“그렇기도 하지. 송진으로 만든 송탄유는 제3의 석유라고 부르거든.”

“둘째는요?”

“둘째는 약품으로 썼어.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광택제로 쓰이기도 하지.

“광택제라고 하면 아버지 구두에 바르는 구두약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래, 바로 그거야. 가구에 발라 문지르면 새 것처럼 윤이 반짝 반짝 나는 거야.”

“셋째는요?”

“셋째는 악기 연주에 쓰였지.”

“악기 연주에 쓰였다고요?”

“그래, 송진은 바이올린, 해금 등의 현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가 자주 사용했지. 해금을 켜는 활에 송진을 바르면 더 맑고 고운 소리가 나는 까닭이야.”

“그렇군요. 송진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네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우리나라 소나무가 큰 피해를

입었어.”

“어떤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건,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전투 비행기에 쓸 연료로 송진을 강제로 채취한 거야. 우리나라 소나무에 칼집을 내고 무더기로 송진을 채취한 거야.”

“그래서 아릅드리 소나무마다 커다란 상처를 입은 것이군요.”

“그래. 전국의 소나무는 물론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마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자로 깊게 패인 칼집을 보면 나는 그만 우울해진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이품송에도 칼집을 내다니요. 송진을 강제로 채취한 일본인도 나쁘지만 정이품송에 상처를 낸 우리 국민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예요.”

“그것뿐이 아니란다. 우리나라 금강소나무는 아주 훌륭한 목재여서 많은 수난을 당했지.”

“어떤 수난을 당했는데요?”

“첫째는 금강송을 베어다가 궁궐을 짓는데 썼어. 그 다음은 사찰, 향교, 한옥 등을 짓는데 썼지. 금강송은 향기롭고 잘 썩지 않는 까닭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담은 관으로도 많이 쓰였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생겨난 거야.”

“아, 예. 못생긴 소나무는 목재로도 관으로도 쓸모가 없어 बे지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그래, 그래서 잘 생긴 소나무는 사라지고 못 생긴 소나무만 남게 되었지. 못생긴 소나무만 살아남아서 못생긴 소나무 씨앗을 여기저기에 퍼뜨렸지. 구불구불 못생긴 소나무는 정원수로도 좋으나 재목으로는 못 쓰지.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렴. 우리나라 산야에 못 생긴 소나무만 가득해서야 되겠니?”

“아니요. 잘 생긴 소나무가 가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라져 가는 전통 한옥이나 불타버린 국보급 문화재를 쉽게 복원하지요.”

“그래, 그래서 잘 생긴 금강송의 묘목을 골라 산에 심고 가꾸어야 한단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효성아, 너 속리산 문장대에 올라가 보았니?”

“예, 지난해 추석 때에 올라 가 보았어요.”

“그랬구나! 속리산 문장대는 지난해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단다.”

“달라진 것이 있다고요?”

“그럼, 달라진 것이 있고말고.”

“문장대 바위가 벼락을 맞아 금이라도 갔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정이품송을 빼어 닮은 아기 소나무가

심어졌지.”

“아하, 외삼촌이 심으셨군요.”

“맞았다. 문장대 오름 길 보수공사 기념으로 심었지. 크기는 작지만 정이품송을 판박이로 빼다 박았어.”

“외삼촌의 말씀을 듣고 보니 당장 보고 싶네요.”

“그래, 어서 가서 살펴보자. 그러나 아직은 아기 정이품송을 살렸다는 자신이 없어.”

“왜요? 소나무는 땅에 심으면 잘 살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속리산 문장대는 높은 곳이야. 해발 1,057m의 고산지대야. 겨울바람이 워낙 맵고 추워서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 힘들지.”

“그래서 아직은 살았다고 장담을 못하시는군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서 한 3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그때였다. 못 보던 버섯 한 송이가 효성의 눈에 띄었다. 신갈나무 가지에 달린 하얀 빛깔의 버섯이었다.

“외삼촌, 저거 혹시 송이버섯이 아닌가요?”

“어디 말이냐?”

“저 오래 묵은 신갈나무 가지에 난 하얀 버섯 말이에요.”

“아하, 저것은 노루궁둥이버섯이란다. 송이버섯은 오래된 소나무가 자라는 땅에서만 나지.”

“노루궁둥이버섯이요?”

“그래, 노루궁둥이버섯이야. 노루궁둥이에 난 하얀 털을 닮아서 그렇게 부르지. 노루궁둥이버섯은 위염, 위궤양, 식도염, 아토피 등에 아주 효과가 뛰어난 버섯이란다.”

“아토피 피부염에 약효가 있다고요?”

“효과가 있고말고.”

“그럼, 제가 먹으면 이 팔뚝의 아토피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럼, 그럴 수도 있지.”

효성은 노루궁둥이버섯이 아토피 피부 질환에 큰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신이 났다. 외삼촌을 따라 이리저리 숲속을 뛰어 다녔다.

“효성아, 이리 좀 와보아라.”

“예, 외삼촌. 송이버섯이라도 발견하셨나요?”

“아니, 네 눈을 놀라게 할 버섯을 찾았다.”

“우와! 이게 무슨 버섯이지요?”

“버섯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알아 맞추어보아라.”

“음, 노란 색이니까 노랑버섯이요.”

“그래, 반은 맞추었다.”

“누나들이 신는 망사 스타킹을 닮았어요.”

“그래, 그래서 노랑망태버섯이란단.”

“신기해요. 어쩜 이런 버섯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다 하느님이 내린 대자연의 선물이지.”

효성이는 외삼촌과 함께 노루궁둥이버섯, 노랑망태버섯, 밤버섯, 싸리버섯 등을 채취하였다.

“외삼촌, 이리 좀 와보세요.”

“왜?”

“여기 이상한 버섯이 있어요.”

“어떻게 생긴 버섯인데?”

“부침개만큼 큰 버섯이에요.”

“그래?”

외삼촌이 효성이의 말을 듣고 비탈길을 내려왔다.

“우와! 능이버섯이로구나!”

“능이버섯이요?”

“그래, 능이버섯이야. 송이버섯에 버금가는 버섯이지, 버섯찌개를 끓이는 데는 능이를 따라갈 버섯이 없어. 육질이 쫄깃쫄깃한 데다가 양도 많고 향기도 좋아. 버섯요리에는 그만이지.”

“그렇게 좋은 버섯이에요?”

“그럼, 산골 식당에 능이백숙이라고 써 붙인 메뉴를 아직 못 본 모양이구나!”

“능이백숙이요? 그리고 보니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산 사람들은 버섯의 가치를 1능이, 2표고, 3송이로 손꼽는단다.”

“그렇군요. 저도 표고버섯은 먹어 보았지만 능이는 오늘 처음 보았어요.”

“그래. 어쩌면 오늘 송이버섯도 눈에 뜨일 지도 몰라.”

그러나 반나절을 돌아다녀도 기대했던 송이버섯은 두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았다.

“외삼촌, 송이버섯이 보이지 않네요.”

“그러게 말이다. 송이버섯은 값이 비싸서 마을 사람들이 매일 채취하기에 그렇단다. 부지런한 사람은 어두컴컴한 새벽에 손전등을 들고 산에 올라가거든. 크고 잘 생긴 송이버섯은 한 개에 십만 원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채취한 버섯도 아주 귀한 자연산 버섯이란단.”

“외삼촌, 송이버섯은 소나무 숲에서만 나오지요?”

“그렇지. 그것도 30~40년 이상 된 소나무 숲에서만 생산된단다. 소나무 뿌리가 땅속에서 썩으면 그곳에 송이버섯의 종균이 번식

하는 까닭이야.”

“능이버섯은요?”

“능이버섯은 20~30년 이상 된 참나무 숲에서 자주 눈에 띈단다.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상수리, 신갈나무, 졸참나무 등의 참나무 숲에서 발견되지. 참나무 종류의 뿌리가 썩으면 그곳에 능이버섯의 종균이 번식하는 거야. 그런데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의 가장 다른 점은 햇빛과 많은 관계가 있단다.”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송이버섯은 햇볕이 드는 남쪽 산비탈에 나고 능이버섯은 햇볕이 드문 북쪽 산비탈에 난단다.”

“그렇군요. 버섯의 생태를 제대로 알아야 송이나 능이버섯을 만날 수 있군요.”

“그래, 무턱대고 쏘다니면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단다.”

효성이와 외삼촌은 어느덧 속리산 동북능선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문장대에 이르렀다.

“우와, 문장대다.”

문장대는 2층 교실 보다 더 커 보였다. 커다란 바위덩이가 하늘을 향해 놓인 산봉우리였다. 그 앞에 꼬마 정이품송이 문장대를

지키고 서있었다.

“외삼촌, 꼬마 정이품송이 여기 있어요.”

“그래, 너를 닮은 소나무야.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 꼬마 정이품송도 무럭무럭 잘 자라겠지?”

“맞아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문장대 앞에 심은 꼬마 정이품송을 두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효성아, 예서 점심을 먹고 법주사로 내려가자.”

“외삼촌, 고대하고 기대했던 식사시간입니다.”

외삼촌이 배낭에서 송편과 과일을 꺼냈다. 효성이와 외삼촌은 밤 송편과 콩 송편을 먹으면서 가을 햇볕을 즐겼다. 된장잠자리 몇 마리가 높고 푸른 가을하늘에 빙빙 맴을 돌았다.

점심을 먹고 나서 효성이와 외삼촌은 여적암골로 내려섰다. 여적암골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소나무가 울창하였다.

“외삼촌, 이 나무들이 금강소나무인가요?”

“그래, 이 소나무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강송이란대. 조선시대의 건물인 경복궁과 남대문도 이런 소나무로 기둥을 깎아 세운 거란다. 속리산법주사를 처음 지을 때에도 목수들은 이곳의 소나무를 베어 썼을 거야. 그리고 속리산법주사를 수리하면서

도 이곳의 소나무를 베어 썰겠지.”

“대단해요. 전봇대보다도 더 높고 꼳꼳한데요.”

“그래, 이곳 소나무의 높이는 20m 정도이고 평균 지름은 50~60cm란다.”

“이 정도 크기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으흠, 200년은 되었을 성 싶구나! 이대로 100년만 더 자라면 70~80cm 굵기로 자라겠지. 그때에는 사찰과 궁궐을 보수하는 데 쓰일 기둥으로도 안성맞춤일거야.”

“지금부터 100년 후라고요? 그때는 저도 외삼촌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나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이런 소나무를 언제 또 만나겠니? 베어 쓰기만 하고 가꾸지 않으면 산은 얼마나 황폐하고 쓸쓸하겠니? 200년 전의 선조들이 금강송을 가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겠니?”

“외삼촌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군요.”

“그래, 우리는 100m 달리기만 하고 경기를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어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지. 다음 주자에게 바턴을 이어주는 400m 경주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보니 우리나라의 금강소나무는 황금 바턴이네요.”

“그래. 우리 효성의 생각이 제법이구나!”

효성과 외삼촌은 속리산법주사로 향하는 길에 잠시 여적암에 들렀다. 솔향기가 감도는 여적암의 샘물은 달고 시원했다. 두 사람은 여적암에서 거북바위로 이어지는 산길을 따라 속리산법주사로 내려왔다.

속리산법주사는 신라 진흥왕 때에 창건된 사찰이었다. AD 553년, 진흥왕 14년, 의신 스님에 의해 세워졌다. 그 후 속리산법주사는 여덟 차례나 다시 고쳐 지었다.

법주사의 너른 뜰에는 여러 가지 국가지정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건물은 ‘팔상전’이었다.

“외삼촌, 저 멋진 건물이 팔상전인가요?”

“그래, 바로 보았다. 저것이 그 유명한 법주사팔상전이다. 국보 제55호로 지정된 법주사팔상전은 신라시대의 5층 목조 건물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만 남아 있는 희귀한 건물이지. 팔상전의 벽면에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그린 팔상도(八相圖)가 있어 팔상전이라 이름 붙였단다.”

“팔상도는 어떤 장면인가요?”

“팔상도는 석가모니가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룸비니 동산

에 태어나는 장면, 궁궐 밖으로 나가 세상을 관찰하는 장면, 궁성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설산에서 고행하는 장면, 보리수 아래서 마귀를 항복시키는 장면, 녹야원에서 설법하는 장면,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하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이란다.”

“이 팔상전도 금강소나무로 지은 건물이지요?”

“그래, 너의 말이 맞다.”

법주사오층목탑으로도 불리는 팔상전은 매우 아름다웠다. 신라의 도성 금성(경주)에 세워졌던 황룡사구층목탑보다 93년 전에 세워진 목조 건축물이었다.

팔상전을 올려다보던 외삼촌이 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해 설명해줬다. 법주사오층목탑의 두 배나 되었던 황룡사구층목탑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신라의 도성 금성에 섰던 황룡사구층목탑은 AD 645년 선덕여왕 14년에 세워졌다. 고승 자장율사의 건의에 따라 백제의 기술자 아버지의 설계로 건축되었다.”

“백제의 기술자 아버지도 법주사오층목탑을 보셨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법주사오층목탑을 꼼꼼이 살펴보고 황룡사구층목탑의 설계도를 그렸겠지.”

효성이의 추리에 외삼촌이 고개를 크게 끄덕여 동의하였다.

“신라 제26대 진평왕은 딸만 셋을 두고 있었다. 장차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이 되는 덕만공주, 제29대 무열왕의 할머니가 되는 천명공주, 그리고 제30대 백제 무왕의 왕비가 되는 선화공주였다. 세 명의 공주들은 신라왕의 자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진평왕이 죽고 덕만공주가 왕위에 오르자 나라를 위해 다툼을 멈추었다. 서로 힘을 모아 신라의 도성 금성에 황룡사구층목탑을 세웠다. 선덕여왕은 금을 내고 천명공주는 쌀을 내고 선화공주는 백제 최고의 목수를 신라에 보내 황룡사구층목탑을 세웠단다.”

“황룡사구층목탑이 경주에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 지금은 불타버리고 없단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보 1호 숭례문처럼 누가 불을 질러 타버렸나요?”

“그래, AD 1238년 고려 고종 25년의 일이었다. 신라 최고의 건축물이던 황룡사구층목탑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저 북쪽 오랑캐 몽골군의 방화로 황룡사구층목탑은 불타 없어지고 말았다. 지금은 단지 황룡사구층목탑의 주춧돌만 남아 들판에 뒹군단다.”

“외삼촌, 참 분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단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황룡사구층목탑은 그렇게 사라졌다. 그 후 불타버린 황룡사구층목탑을 그리워한 어떤

신라인은 경주 남산의 바윗돌에 그 모습을 새겼지. 또 고려 때의 어떤 스님은 청동으로 그 모습을 줄여서 만들었다. 황룡사구층목탑의 축소판이었지.”

“와! 대단한 일이네요.”

“그래, 바윗돌에 새긴 그림은 조감도가 되고 청동으로 줄여 만든 구층탑은 모형이 되는 것이지.”

“법주사오층목탑은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황룡사구층목탑을 우리 기술로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지.”

“정말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렴,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야. 고려 때의 학자 김극기(金克己)라는 분이 황룡사구층목탑에 올라 지은 시가 있단다. 들어보려무나.”

외삼촌이 옛 시 한 수를 천천히 외우셨다.

층층 계단은 빙 둘러 허공을 나는 듯
일만 산과 일천 물이 한 눈에 잡힌다.
몸은 다람쥐 되어 바깥을 오르내리고
눈은 나비 되어 가운데를 가고 온다.

별 그림자 처마 앞에 빗방울 되어 떨어지고
월계수 향기 바람 되어 난간 밑에 나부낀다.
굽어보니 금성에 집들이 참으로 많은데
별집이나 개미구멍처럼 아득히 보인다.

“어떠냐? 80m 높이의 황룡사구층목탑이 눈앞에 그려지느냐?”

“예,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목수가 되어 황룡사구층목탑을 복원하고 싶어요.”

“무어, 네가? 우와! 대단히 멋진 생각인데. 아무렴 그래야지.”

외삼촌이 효성이의 어깨를 두드려 격려했다. 두 사람은 팔상전을 한 바퀴 돌아보고 법주사를 나섰다. 속리산 오리 숲을 지나 정이품소나무를 찾아 갔다.

속리산 정이품송은 아직도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600년의 노령인데도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강풍과 눈보라에 동쪽의 커다란 가지가 부러졌다.

“외삼촌, 안타까워요. 정이품송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건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란다. 그러나 가는 세월을 어

찌 막겠니?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없는 거야.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정이품송을 사랑한다면 정이품송의 2세, 3세를 우리가 가꾸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강송이 자라는 속리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리고 보니 금강송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이군요.”

“그래. 효성아, 너 속리산의 이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

“아니요.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바로 너의 조상인 경주 최 씨의 시조 분이시다.”

“그렇다면 최치원선생이십니까?”

“그래, 중국에서도 해동공자로 불린 신라 말의 대 문장가 최치원선생이란대. 최치원선생이 속리산법주사에 머물며 공부하다가 문득 시 한 수를 지었어.”

“어떤 내용의 시인가요?”

“제목이 ‘속리산’ 이야. 들어 보렴”

“예, 삼촌”

외삼촌이 신라 말의 문장가 최치원 선생이 지은 한시를 풀어 천천히 외우셨다.

“도(道)는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데 사람이 도(道)를 멀리하고, 산(山)은 사람을 멀리 하지 않는데 사람이 산(山)을 멀리한다.”

“산에 자주 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 산에 자주 와서 몸과 마음을 닦으라는 내용이지. 이 시에 ‘속리(俗離)’ 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단다.”

“그렇군요. 저는 그 사실을 여태까지 몰랐어요.”

“그렇겠지. 외삼촌도 지난해에 겨우 알게 되었어. 그 전에는 속리산(俗離山)이 그저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라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말이다. 어느 날, 속리산은 소나무가 아름다운 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세상과 멀리 떨어진 속리산(俗離山)이 아니라 소나무가 아름다운 송니산(松尼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속리산에는 천하대장군을 닮은 정이품송이 있고 지하여장군을 닮은 왕소나무가 있지 않니? 그리고 보니 속리산은 본래 송니산(松尼山)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소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산, 송니산. 너의 생각은 어떠냐?”

“맞아요. 저도 외삼촌의 생각과 똑같아요. 속리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나무를 가진 산이에요.”

외삼촌의 주장에 효성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인정했다. 동지를 얻은 외삼촌이 정이품송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러더니 솔

밭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다.

“외삼촌, 뭐하시는 거예요?”

“응, 이거 솔방울이야. 정이품송의 2세가 될 소나무 씨앗이지.
내년 봄에 할아버지 산소 주변에 뿌릴 거야.”

외삼촌이 한 눈을 찡긐하며 효성이를 손짓하여 불렀다. 효성이라도
달려가 정이품송이 떨어뜨린 솔방울을 하나, 둘 줍기 시작하였다.

“까까, 깹깹!”

까치 두 마리가 정이품송 가지에 날아와 반갑게 울었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에서
다음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능이버섯	노랑망태버섯	왕소나무
송이버섯	노루궁둥이버섯	정이품송

2. 인터넷 홈페이지 ‘속리산법주사’에서
다음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속리산법주사	팔상전	쌍사자석등
--------	-----	-------

꼬리명주나비

“봉화야, 오후에 배추 좀 같이 뽑자.”

“예, 아버지. 학교 끝나는 대로 곧장 달려올게요.”

강원도 매봉산에 사는 봉화네는 고랭지 채소를 기른다. 해발 800m의 서늘한 산골 마을은 고랭지 채소 재배에 적합한 기후였다.

지난봄에 심은 배추가 싱싱하게 잘 자랐다. 이제는 대도시에서 내다 팔 때가 되었다. 봉화네 가족은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배추를 거두어야 했다.

그날부터 봉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은 바쁘게 움직였다. 장마가 오면 배추가 비에 녹고 배추가 녹으면 올 해 농사는 허탕을 치게 된다.

산비탈에 가득했던 배추 수확이 끝나자 장마가 시작되었다. 6월

하순에 시작된 장맛비는 보름 가까이 오락가락했다.

7월 중순이 되자 햇볕이 반짝 났다. 지루했던 장마전선이 서서히 물러났다. 산봉우리를 가렸던 구름이 걷히고 푸른 능선이 나타났었다. 그러자 어디서 이름 모를 나비들이 무더기로 날아왔다.

산촌 마을에 날아 온 나비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어림잡아 스무 마리도 넘는 나비가 봉화네 옥수수 밭에 날아 다녔다. 수많은 나비 떼를 보고 깜짝 놀란 봉화가 할머니에게 여쭙었다.

“할머니, 저 나비는 무슨 나비예요?”

“저건 꼬리명주나비란다.”

“꼬리명주나비요?”

“그래”

“이거 야단났네요. 얼른 아버지께 알려야겠어요.”

“왜? 꼬리명주나비 애벌레 때문에 그러느냐?”

“그럼요. 얼른 농약을 뿌려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배추를 다 갇아 먹어요.”

“봉화야! 걱정하지 마라. 꼬리명주나비는 배추에 알을 낳지 않는다. 쥐방울덩굴에 알을 낳는다. 꼬리명주나비 애벌레는 쥐방울덩굴만 먹고 자라거든”

“쥐방울덩굴이요?”

“그래, 우리 배추밭머리의 덩굴 숲에 말이야. 거기에 까만 애벌레들이 많았지 않니?”

“예, 저도 보았어요. 그것들이 자라 나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이 할미의 말이 믿어지지 않니?”

“안 믿어져요. 그 징그럽던 애벌레가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변했다고요?”

“정말이야. 이 할미는 세상을 오래 살아서 다 알지. 꼬리명주나비 애벌레가 무슨 풀을 먹고 쥐방울덩굴이 어디에 자라는지 훤히 알지.”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건, 누에를 키워봐서 안다. 너 번데기 먹어봤지?”

“예, 번데기 통조림을 먹어봤어요. 고소하던데요.”

“바로 그거야. 예전에는 마을마다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길렀어요. 값비싼 명주실을 얻기 위해서였지.”

“명주실이라면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 뽕나무 잎을 먹고 자란 누에가 고치를 지으면 고치에서 명주실을 얻어냈지.”

“명주실은 비단을 짜는 원료지요?”

“그렇지, 비단은 아주 고급 옷감이어서 매우 비싼 값에 팔렸지”

“아!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 시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옛날 로마왕은 황금과 비단을 사서 옷을 지어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서양을 잇던 길을 ‘비단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비단과 황금이 오고간 길 실크로드(Silk Road)”

“그래, 바로 그거야. 낙타를 타고 온 대상들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생산한 비단을 황금을 주고 바꿨던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 사막을 건너와서 비단을 사간거야.”

“맞아요. 그래서 영어의 실크(silk)는 우리 말 ‘실(sil)’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했어요.”

“우와, 우리 손녀 제법 똑똑한데. 할머니도 너만 하였을 때부터 누에를 길렀단다. 할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뽕잎을 따다 누에를 길렀지.”

“저도 들었어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누에는 뽕잎만 먹는대요.”

“그렇지. 꼬리명주나비는 쥐방울덩굴에 알을 낳고 산호랑나비는 산초나무 잎에 알을 낳아. 또 모시나비는 기린초에 알을 낳고 애호랑나비는 족도리풀에 알을 낳지. 그래서 먹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굶어 죽지 않는 거야.”

“할머니, 산초나무는 또 어떤 나무예요.”

“산초나무? 너, 추어탕 먹어 보았지?”

“무시레기와 미꾸리를 넣어 끓인 추어탕이요?”

“그래”

“그건 할머니가 끓여 주시는 가을철 특별 음식이잖아요?”

“그렇지. 그때 네 아버지가 추어탕에 넣어 먹던 향기 나는 잎사귀를 보았지?”

“예, 기억나요. 냄새가 지독했어요.”

“그래? 지독한 게 아니고 향기롭지?”

“그런데요?”

“바로 그게 산초나무 잎이야.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산초나무 잎사귀를 먹고 자란단다.”

“산호랑나비 애벌레가 산초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데는 무슨 까닭이 있나요?”

“있고말고, 어디 한번 알아 맞춰보아라.”

“모르겠어요. 힌트를 주세요.”

“그래 힌트를 주지. 향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벌 나비를 불러모으는 꽃향기가 있고 파리나 모기를 쫓는 모기향이 있지.”

“그러니까 산호랑나비 애벌레는 산새들을 쫓기 위해 산초나무 잎을 먹는 건가요?”

“그래, 제대로 맞추었다. 산초나무 잎을 먹고 지독한 냄새를 풍

기면 산새들이 싫어하거든”

“할머니, 그런데 숲에 쥐방울덩굴이 없으면 꼬리명주나비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큰일이지. 쥐방울덩굴이 없으면 꼬리명주나비는 죽고 말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공룡처럼 멸종하는 거네요.”

“그래,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나무가 어떤 생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거야.”

“맞아요. 일본에서 멸종한 붉은점모시나비가 우리나라에서도 멸종 위기라고 들었어요.”

“그래, 붉은점모시나비의 서식지가 훼손된 탓이야. 산에 골프장과 스키장을 만들면서 붉은점모시나비가 살 곳을 잃어버린 거야. 붉은점모시나비의 먹이인 엉겅퀴 꽃이 사라지고 애벌레의 먹이인 기린초가 사라지자 붉은점모시나비도 자취를 감춘거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람들이 붉은점모시나비를 마구 잡은 까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하얀 날개에 붉은 무늬가 찍힌 붉은점모시나비는 누가 봐도 탐이 나거든.”

“할머니, 붉은점모시나비를 가장 많이 채집하는 사람들은 일본

인이래요. 하얀 날개에 찍힌 붉은 점이 일장기를 상징하는 때문이래요. 그래서 불법으로 채집한 붉은점모시나비가 몰래 일본으로 밀수출되고 있대요.”

“저런 나쁜 사람들, 그러다가 붉은점모시나비가 사라지면 어찌 하려고”

“붉은점모시나비를 잡아 일본인에게 파는 한국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래, 돈으로 나비를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나비를 잡는 사람도 없을꺼야.”

“정말 반성해야 해요.”

“하느님은 참 신비롭기도 하시지. 어찌면 저리 아름다운 나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내셨담.”

옥수수 밭에 날아다니는 꼬리명주나비는 아름다웠다. 날개옷을 입은 선녀처럼 하늘하늘 하늘을 날아다녔다. 지루한 장마가 끝난 것을 축하 비행이라도 하는 모양이었다. 바야흐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여름은 나비들의 계절이었다.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많은 것은 수컷이야. 그리고 흰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많은 것은 암컷이지.”

“할머니, 암컷의 수효가 훨씬 적은데요.”

“그래, 열 마리에 한두 마리 꼴로 암컷의 수효가 적단다.”

꼬리명주나비는 봉화네 배추밭머리의 쥐방울덩굴에서 날아왔다. 하트형의 쥐방울덩굴 잎사귀를 먹고 자라 꼬리명주나비가 되어 날아왔다.

“할머니, 꼬리명주나비 애벌레 보러가요.”

“지금 가자고? 지금은 꼬리명주나비 애벌레가 있을 리 없지. 다 자라 성충이 되었잖니? 일주일쯤 후에 가보자꾸나. 꼬리명주나비들이 아직 쥐방울덩굴에 알을 낳지 않았을 거야.”

그랬다. 꼬리명주나비는 쥐방울덩굴에만 알을 낳았다. 깨알만큼 작고 흰 알 수십 개를 쥐방울덩굴 잎사귀에 붙여 낳았다. 쥐방울덩굴이 무성하면 알을 많이 낳았고 쥐방울덩굴이 미약하면 알을 조금 낳았다. 나비들도 새끼들이 먹을 양식을 보고 적당히 알을 낳는다.

꼬리명주나비의 알은 스스로 깨어 검은색의 애벌레가 되었다. 검정 몸뚱이에 노란 점이 박힌 꼬리명주나비의 애벌레는 무섭고도 징그러웠다.

“할머니, 애벌레가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래, 산새나 곤충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위장술이다. 등에 있는 노란 점무늬를 보렴. 마치 매의 눈과 같지 않니?”

“그래요. 독수리눈처럼 무섭게 보여요.”

꼬리명주나비 애벌레는 쥐방울덩굴 잎사귀를 먹고 자라 또 한 마리의 아름다운 꼬리명주나비가 되었다.

여름 방학이 왔다. 봉화네는 다시 고랭지 밭에 배추 묘를 심었다. 고랭지 밭의 가을배추는 날마다 싱싱하게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디선가 봉화네 텃밭으로 하얀 나비가 날아왔다. 텃밭에 날아온 것은 꼬리명주나비가 아니라 배추흰나비였다.

장다리꽃에 앉아 꿀을 빨던 배추흰나비는 짝을 지어 날았다. 그러다가 무 배추 이파리의 여기저기에 노란 알을 붙여 낳았다.

며칠이 지나자 깨알같이 작은 알에서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깨어났다. 갓 태어난 배추흰나비 애벌레는 노란 빛깔이었다. 그러나 배춧잎을 먹으면서 애벌레는 이내 녹색으로 변했다. 배추 잎과 비슷한 연두색으로 변해서 산새들의 눈을 피했다.

“아버지, 텃밭에 농약을 뿌려야겠어요.”

“왜? 배추흰나비 애벌레 때문에 그러느냐?”

“그럼요. 그래야 배추가 깨끗하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도 다 생각이 있어서 농약을 치지 않는

거야.”

채소밭에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생기면 농약을 뿌려야한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았다. 텃밭의 무 배추는 배추흰나비의 먹이로 두었다.

“배추흰나비가 고랭지 채소밭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작전이군요?”

“그래, 배추흰나비도 먹고 살아야지.”

봉화 아버지는 고랭지 채소밭에 농약을 적게 뿌렸다. 친환경 청정 채소로 팔 것이므로 살충제를 적게 뿌렸다. 그 대신 아침저녁으로 고랭지 채소밭에 나가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손으로 잡아 없앴다.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벌레 먹은 배추 잎사귀 뒷면을 뒤져보면 배추흰나비 애벌레는 쉽게 발견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봉화도 가끔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잡았다.

고랭지 배추밭을 건사하기에는 배추흰나비 애벌레보다 진딧물이 더 문제였다. 진딧물의 수효는 너무 많아서 손으로 잡아 제거할 수도 없었다.

진딧물의 피해를 막으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한다. 그런데도 봉화 아버지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다. 그 대신 스스로 자연 농약을 개발하여 썼다.

무 배추에 벌레가 생기면 담배나 박하 잎을 우린 물을 뿌려 주었다. 그래도 부족하면 으깬 마늘이나 식초를 물에 타서 뿌려 주었다.

어떤 때는 숲에서 날아온 무당벌레가 봉화 아버지의 바깥 일손을 덜어 주었다. 수백 마리의 무당벌레가 배춧잎에 달라붙은 진딧물을 잡아먹었다. 그 모습을 본 봉화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콧노래를 불렀다. 봉화 아버지는 진딧물을 잡아먹는 무당벌레를 ‘콩쥐공주’로 부르며 귀여워하셨다.

“아범아, 새참 먹고 일하자.”

땀 흘려 일하는 가족을 위해 할머니가 간식을 내오셨다. 텃밭에서 가꾼 옥수수와 산에서 딴 열매로 만든 오미자차였다. 방금 숲에서 켜낸 옥수수는 구수하였고 얼음을 넣어 만든 오미자차는 새콤달콤하였다. 봉화네 가족은 옥수수를 먹으며 떡갈나무 그늘에서 쉬었다.

그때였다. 고랭지 배추밭머리에서 나비들이 하나둘 날아올랐다. 꼬리명주나비였다.

“우와, 멋져요. 꼬리명주나비가 선녀처럼 날아요.”

하늘로 날아오르는 꼬리명주나비를 보고 봉화가 소리쳤다.

“그래, 비단처럼 하늘을 날아서 꼬리명주나비란다.”

꼬리명주나비는 가오리연처럼 하늘로 날아올랐다. 올 들어 두

번째로 우화¹⁰⁾하는 꼬리명주나비였다.

“봉화야!”

“예, 할머니”

“네 아버지가 고랭지 밭에 농약을 치지 않는 까닭도 여기에 있단다.”

“꼬리명주나비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래”

“아빠! 아빠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지. 그때는 방학과제로 곤충채집이나 식물채집이 유행할 때였어. 아빠는 여름방학과제로 나비 표본을 만들었지.”

“그때에 꼬리명주나비를 발견하셨군요.”

“그래, 바로 이 산기슭에서였어. 그때도 지금처럼 꼬리명주나비가 하늘을 하얗게 날았지. 벌써 30년 전의 일이란다.”

봉화 아버지는 옛일을 추억하면서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학교에서 곤충이나 식물채집은 아예 방학과제로 내지 않아요.”

“그래, 자연을 배우는 것보다 자연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지. 아빠도 나비 표본을 만들면서 나비에게 많은 죄를 지었다. 배추흰

나비, 산호랑나비, 제비꼬리나비, 산신령나비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비를 잡아 표본을 만들었지. 그러다가 문득 나의 잘못을 깨달았단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 후로 아빠는 나비에게 독이 되는 농약을 쓰지 않기로 마음 먹었군요.”

“그렇지, 그래서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감자나 옥수수 농사를 많이 지었단다.”

“그러다가 동식물에게 피해가 없는 자연농약을 개발하신 것이군요.”

“그래. 봉화야! 저 꼬리명주나비가 하늘을 나는 모습 좀 보아라. 얼마나 평화로우냐?”

“마치 비눗방울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봉화야, 너도 저 배추밭머리의 쥐방울덩굴을 잘 보호해야한다.”

“그럼요. 우리 할머니가 지켜온 쥐방울덩굴인걸요.”

꼬리명주나비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봉화야!”

“예, 할머니”

“네가 오늘부터 지켜야 할 몇 가지가 있다.”

“할머니, 무엇인데요?”

10) 우화-번데기가 날개 있는 어른벌레가 됨

“첫째, 파리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파리요? 파리는 밥을 훔쳐 먹는 해충이잖아요.”

“파리를 자세히 보아라. 미안하다며 두 발로 짹짹 밀지 않느냐?”

“하하하! 그리고 또요.”

“둘째, 모기도 함부로 죽이지 마라.”

“모기도요?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잖아요?”

“모기를 자세히 보아라. 잘못했다고 앵앵 울면서 반성하지 않느냐?”

“호호호! 할머니는, 또요.”

“셋째, 개미도 함부로 짓밟지 마라.”

“개미도요? 개미는 사람을 물잖아요?”

“네 앞에 벌벌 기는 게 불쌍하지 않느냐?”

“후후후! 우리 할머니는 벌의 벌 생각을 다하신다니까.”

“넷째, 달팽이도 함부로 붙잡지 마라.”

“달팽이도요? 달팽이는 우리 배추를 갉아 먹어요.”

“숲속을 느릿느릿 기는 게 평화롭지 않느냐?”

“히히히!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하하하! 호호호! 후후후! 히히히!”

봉화네 가족의 웃음소리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꼬리명주나비를 따라 푸른 하늘로 멀리 퍼졌다.

더 알아봅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남한산성자연사랑’ 에서 나비의 사진을
더 찾아봅시다.

꼬리명주나비	멋쟁이나비	산호랑나비
애호랑나비	산제비나비	붉은점모시나비
애호랑나비의 알	대왕나비	은판나비

참죽나무

“참 잘 컸다.”

“그래, 어디 하나 옹이 하나 없이 쭉 빠졌네!”

“한 3백 년은 된 것 같지 않나?”

“그래, 나이테를 보아야 알겠지만 그 정도의 나이는 먹은 것 같구먼”

어느 서늘한 가을날이었다. 서너 명의 목수들이 정수네 참죽나무를 보러왔다. 시내에서 가구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죽나무를 흥정하러 왔다.

목수들이 다녀 간 며칠 후였다. 아침 일찍부터 까치들의 행동이 수상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정수를 할머니께서 손짓하여 부르셨다. 할머니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귀뜸을 하셨다.

“애야, 우리 집 까치가 이사를 간다.”

“까치가 이사를 간다고요?”

“그래, 저기 좀 보라.”

정수네 까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사실이었다. 정수네 까치가 정말 이사를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던 둥지를 허물어 동구 밖 미루나무로 이사를 가는 것이다. 둥지를 엮었던 나뭇가지를 하나씩 물어 나르는 것이다. 마을 어른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한 마디씩 하렸다.

“영물일세. 영물이야!”

“그러게 말이야. 제 집이 헐릴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아마도 그날 지켜본 게지. 목수들이 나무 둘레를 재는 것을 말 이야.”

“그런 모양일세 그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참죽나무에 지었던 까치둥지는 날마다 작아졌다. 그 대신 미루 나무에 짓는 까치둥지는 나날이 커졌다. 처음에는 미미하더니 1주일이 지나자 제법 까치둥지의 흔적이 뚜렷하였다.

정수네 집 뒤곁에는 하늘을 찌를 듯 우뚝한 참죽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다. 신주단지를 모셔 놓은 바로 그 곁에 있었다. 몇 백 살이나 먹었는지 모르지만 정수네 참죽나무는 마을에서 제일 컸다. 어

린 정수가 안으면 두 아름이 되었고 키 큰 어른들도 한 아름에 안지 못할 만큼 굵고 컸다.

정수네 시골집도 마을에서 가장 컸다. 너른 안마당과 바깥마당이 있어 아이들이 놀기 좋았다. 바깥마당에서는 늘 동네 아이들이 모여 민속놀이를 하며 놀았다. 자치기, 구슬치기, 말뚝 박기, 숨바꼭질 등을 하며 즐겁게 놀았다. 추석 명절에는 이곳에서 거북놀이를 펼쳤고 정월 대보름날에는 이곳에서 마을 줄다리기를 벌였다.

대보름날 줄다리기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판을 벌였다.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 하였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이 한 편이 되었다.

추석날 밤에 벌이는 거북놀이는 남자 아이들의 몫이었다. 지게 소쿠리에 수숫잎으로 꾸민 거북이를 물고 다니는 놀이였다. 동해 바다에서 만석 거북이가 이 댁을 찾아왔다고 축복하는 놀이였다. 밝은 달밤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거북놀이를 하고 먹을 것을 얻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나면 송편과 과일 등의 추석 음식이 산처럼 쌓였다.

20여m를 쭉 뻗어 오른 참죽나무에는 까치가 둥지를 틀었다. 몇 대에 걸쳐 이곳에 사는지 모르지만 해마다 새끼를 쳤다. 어른들의 말로는 우리 동네 까치는 모두 이 까치둥지에서 새끼 쳐 나간 것

이라고 했다.

까치둥지도 매우 컸다. 해마다 새로 덧붙여 짓는 까닭에 어느 까치둥지의 두세 배는 되었다. 까치둥지를 거두면 나뭇짐 한 지게는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큰 짓은 까치둥지가 아니라 까치둥지를 튼 참죽나무였다.

목수들이 찾아오자 동네 어른들도 몰려왔다. 마을 어른들은 정수네 참죽나무를 두 팔로 안아 보았다. 서로 돌아가면서 자기 몸의 대여섯 배나 되는 참죽나무를 끌어안았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정든 나무와의 이별이었다.

가구를 만드는 목수들은 참죽나무의 둘레를 재고 지름을 계산하였다. 나무의 높이는 잴 수 없으니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았다. 참죽나무의 기둥을 눈대중으로 계산하였다. 재목으로 쓸 부분은 아마도 9~10m 정도로 컸다. 사찰의 대웅전에 쓰이는 기둥 하나가 290cm이니 기둥 3개가 나오는 크기였다.

목수들은 참죽나무를 보고 저마다 한 마디씩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가구로 만들기에 좋은 참죽나무가 매우 탐이 났던 모양이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참죽나무의 까치둥지가 줄어든 만큼 미

루나무의 까치둥지가 커졌다. 어느덧 미루나무에 또 하나의 까치둥지가 마련되었다. 정수네 까치는 제 둥지를 헐어 급히 이사를 마쳤다.

정수네 까치는 이제 참죽나무 둥지로 날아오지 않았다. 참죽나무에 까치가 날아오지 않으니 공연히 마음이 서운했다.

어느 늦은 가을날이었다. 가을걷이를 마친 아버지께서 정수를 불렀다.

“정수야! 미꾸라지 잡으러 갈까?”

“미꾸라지요? 우렁이도 잡으러 가요.”

“그러자꾸나.”

정수는 아버지를 따라 미꾸라지를 잡으러 갔다. 절 골로 가는 산길에 정수네 벼논이 있었다. 벼를 베고 난 빈 논에는 미꾸리와 송사리가 모여 사는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

정수 아버지는 물꼬를 막고 벼논 웅덩이의 물을 퍼냈다. 양동으로 퍼내는 그릇에 더러 송사리가 휩쓸려 나갔다. 웅덩이의 물을 퍼내고 질척한 개흙을 뒤지면 미꾸라지와 논우렁이가 잡혔다. 웅덩이의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물고랑을 따라갔다. 물고랑을 따라가다 작은 구멍이 눈에 띄면 삽으로 뚫다. 삽으로 진흙을 파서 그

속에 숨은 우렁이를 잡았다.

그때였다. 미꾸라지를 잡고 떠난 웅덩이로 까치가 날아왔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까치는 정수네 참죽나무에 등지를 틀었던 까치였다. 정수네 까치는 정수 아버지가 뒤진 웅덩이에서 무엇을 잡아 입에 물었다.

“아버지, 우리 집 까치예요. 까치가 따라 왔어요.”

“어디? 어라, 정말 그렇구나! 입에 무엇을 물었구나!”

“맞아요. 작은 송사리 한 마리를 입에 물었어요.”

“까치도 고기를 잡으러 우리를 따라 왔나 보다.”

“그래요. 참 영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는 까치가 반가웠다. 정수네 참죽나무를 떠난 까치가 자기를 찾아온 일이 고마웠다.

미꾸라지를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죽나무를 닮은 나무를 만났다. 정수가 그 나무를 보고 아버지에게 여쭙었다.

“아버지, 저 나무도 참죽나무인가요?”

“그건 가죽나무란다.”

“가죽나무요?”

“그래, 참죽나무를 많이 닮았지?”

“예, 참죽나무 이파리와 비슷해요.”

아버지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의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주었다.

참죽나무는 멸구슬과 식물이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높이 2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이다. 사람들은 봄에 참죽나무의 붉은 새순을 따서 나물로 먹는다. 끓는 물에 데쳐서 먹기도 하고 찹쌀 풀을 입혀 기름에 튀겨서 부각을 만들기도 한다. 그 맛과 향이 독특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대나무 죽순처럼 새순을 먹는다 하여 참죽나무에 죽(竹)자가 붙었다.

가죽나무는 소태나무과 식물이다. 중국이 원산지이며 높이 1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이다. 가죽나무의 새순은 잎과 줄기에 독성이 있다. 잎과 줄기에서 나는 냄새가 지독하다. 그래서 나물로 먹을 수 없다. 단지 뿌리껍질을 저근백피라 부르며 한약재로 쓸 뿐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일부지방에서는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를 혼동하여 부른다. 가죽나무는 빨리 자라고 잎줄기가 시원하여 가로수로 많이 심는다.

참죽나무 이름은 가죽나무에 반대되는 이름이었다. 나무 중에는 그 모양이 다른 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이 있다. 바로 참죽나무와 가죽나무가 그런 경우의 하나이다.

참죽나무와 가죽나무는 둘 다 중국 송나라 때 우리나라 고려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잣나무가 신라 때 중국 당나라로 수출된 것처럼 바다를 건너왔다. 그런데 두 개의 비슷한 죽나무가 건너오자 이름에 혼동이 생겼다.

그래서 고려 사람들은 새 순을 먹을 수 있는 나무와 먹을 수 없는 나무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새 순을 먹을 수 있는 나무는 진짜 죽나무가 되었고 새 순을 먹을 수 없는 나무는 가짜 죽나무가 되었다. 참깨와 들깨, 참옷나무와 개옷나무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의 이름이 붙었다.

겨울방학이 왔다. 정수는 친구 성복이와 함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 마을 뒷산에 울창하게 자란 상수리나무를 베러 갔다. 큰 나무 곁에 자라는 작은 나무는 햇볕을 받지 못하여 잘 자라지 못한다. 쭉쭉 자라지도 못하고 곧게 자라지도 못한다. 그래서 베어 주어야 한다. 참숯을 만드는 상수리나무는 불땀이 아주 좋은 땀감이었다.

정수가 힘들게 톱질을 하며 상수리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다. 가까이 있는 커다란 상수리나무에 까치가 날아와 앉았다. 정수네 참죽나무에 살았던 까치였다. 정수는 까치가 무엇을 하는 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까치는 상수리나무 줄기에 숨은 딱정벌레를 찾고 있었다.

까치가 앉은 상수리나무 껍질에는 딱정벌레들이 많았다. 상수리나무 껍질에 숨어 추운 겨울을 나려는 것이다. 그것을 노리고 정수네 까치는 상수리나무 껍질을 살피는 것이다.

“개암나무에 붙은 썩어나 잡아먹어라.”

정수는 땀 흘리며 상수리나무를 베고 까치는 툼툼이 벌레를 잡아먹었다.

언젠가 할머니께서는 정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울안의 나무에 까치가 동지를 틀면 과거에 급제하는 경사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죽나무를 울타리나무로 많이 심었다고 했다.

겨울 방학이 끝났다. 정수는 방학과제를 가지고 학교로 갔다. 정수가 방학과제로 만든 것은 팽이였다. 소나무를 깎아 만든 팽이는 얼음판에서 잘 돌았다.

정수네 참죽나무는 개학하는 날에 베어졌다. 정수는 학교에서도 참죽나무가 베어지는 일만 머리에 떠올랐다. 친구들이 구슬치기 하자는 것도 뿌리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 놓고 뒤꼍으로 뛰어갔다.

‘아!’

뒤뜰이 허전하였다. 그 거대하였던 참죽나무는 걸리버처럼 쓰

러져 올었다. 도끼로 찍어 넘긴 밑둥치의 속살은 피눈물을 흘리듯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참죽나무 밑둥치에 막걸리를 부어 예를 표하고 벌컥벌컥 술을 마셨다.

까치둥지가 궁금한 정수는 얼른 둥지로 달려갔다. 지게로 한 짐은 되었을 것이라는 까치둥지는 산산히 부서져 그 형체만 남았다. 그 모습을 보자니 공연히 집 떠난 까치의 눈치가 보였다. 둥지에 담겼던 하늘 빛 파란 까치 알이 떠올랐다. 둥지를 이소하던 새끼 까치의 모습이 어른거리 마음이 심란했다.

참죽나무 목재는 붉은 속살과 무늬가 아름다워 가구로 이용한다. 중국에서 들여온 나무이기에 산에는 없다. 이른 봄에 나물로 먹는 두릅나무처럼 울타리나무로 많이 심는다. 그러나 참죽나무를 울타리에 심은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얻으려는데 있었다. 우리 속담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다. 울안의 참죽나무에 까치가 둥지를 틀면 그 댁의 자녀가 과거시험에 급제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참죽나무의 꽃은 화려하지 않다. 수수한 흰색이다. 높은 가지에 피는 까닭에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참죽나무 열매의 모양은 독특하다. 다 여물면 목련꽃 피어나듯 벌어진다.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겨울바람에 흔들려 떨어진다.

몇 달 후였다. 참죽나무로 만든 붉은 교자상 두 개가 정수네 집으로 배달되었다. 참죽나무 목재 두 쪽을 붙여 만든 커다란 교자상이었다. 붉은 물결무늬가 저녁노을을 닮아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수네 가족은 논밭과 집을 팔고 대도시로 이사를 갔다.

정수네는 참죽나무 교자상을 오랫동안 가보처럼 두고 썼다. 설이나 추석날 차례 상 차릴 때에는 꼭 꺼내 썼다. 열두 번도 넘게 이사하면서도 족보처럼 가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참죽나무 교자상을 자개무늬 교자상과 바꾸셨다.

정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못내 아쉬웠다. 까치가 둥지를 틀었던 참죽나무가 못내 그리웠다.

참죽나무로 만든 정수네 교자상은 지금 뉘 댁에서 잘 쓰고 있을까?

더 알아봅시다★★

- 인터넷 홈페이지 ‘국립공원관리공단’ 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깃대종의 사진을 찾아봅시다.

국립공원	깃대종1	깃대종2
가야산	가야산은분취	삼
경주	소나무	원앙
계룡산	이끼도롱뇽	호반새
내장산	비단벌레	진노랑상사화
다도해 해상	풍란	상괭이
무등산	—	—
변산 반도	변산바람꽃	부안종개
북한산	오색딱따구리	산개나리
설악산	눈잣나무	산양
소백산	참갈거니	모데미풀

국립공원	깃대종1	깃대종2
속리산	망개나무	하늘다람쥐
오대산	노랑무늬붓꽃	긴점박이올빼미
월악산	솔나리	산양
월출산	끈끈이주걱	물레새
주왕산	둥근잎꿩의비름	솔부엉이
지리산	반달가슴곰	히어리
치악산	금강초롱꽃	물두꺼비
태안 해안	매화마름	표범장지뱀
한려 해상	거머리말	팔색조

